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二十面

社說

街頭의 悲劇 (行旅死亡者의 增加)

一

이世上 넓은天地에 한 한몸을 依支할곳이 업서서, 病든몸, 窮한몸을 悲歎속에 끄을고 이곳저곳으로 漂泊하다가 路上에서 無慘하게 最後를 마치는 可憐한人間의 境遇처럼 人間社會의 生의悲劇을 말하는것은 업다。더욱이 이들의 大部分이 老衰하고 氣力업서서 서글픈人生에 餘喘을 잇는 病弱한 老年者들이라는것을 想到하면 吾人은 一掬의同情의 눈물이 스스로 옷깃을 적시게하는것을 禁치못할것이다。그들은 生을 擇하야 이世上에나타난것은 아니엇다。그러나 自然의攝理와 進化의 流轉속에서 偶然히 이世上에 나타나온以上 산다는것은 그들의 하고저하고 안하고저하는 主觀的事實을 떠난 客觀的인 必然의 事實이엇다 그들은 人生이 실흐나 조흐나 살지안흐면 안될터이엇다。그러나 辦事만흔 이社會에 살기에는 不適當한제비를 뽑고나온 그들에게는 生을 享有한다는것은 너머나 큰負擔이엇다。이리하야 무거운짐을지고 괴로운 길을 헤매이든 그들의 어느部分은 해저므는날 路上에서 하염업시쓰러지고만다 行旅死亡者의 可憐한 情狀을 우리는 이러케 그려본다。

二

當局의 調査한바에 依하면 昨年中 全朝鮮에 行旅病者는 總數가 五千二百四十九人인데 그中에 死亡者의 數는 四千九百十八名의 多數라고 한다。行旅病者라고 取扱할 性質의 依支업는 路上病人의 거의 全部는 死로써 그人生을마치는 可憐한事實을 如實히 表示한 悲劇的인數字이다。그런데 現在當局의 行旅病人救護狀況은 行旅病者가 死亡한後에 그屍體를 埋葬하는等 死後處置에 그칠뿐이요 事實上 그들을 救護하야 살게하는數는 極少數에 不過한모양이다 이것은 勿論이러한事業에對한統一的法規가업고 또 所要經費가 적어서 이런데必要한 特別한施設이업는때문이겟지마는 行旅病者의救護가 死後의 處置等에 그치고만다는것은 너머나 名實相符치못한 遺憾스러운事態라 고아니할수업다。

三

社會의 經濟的進展은 그上層部의 生活이 向上되는데, 倂進하야 下層部가 이와 共存共榮할만한 經濟的發展으로써 實現되는것이다。그런데 現代社會經濟生活의 指導原理는 너머나 個人의 利益이 本位가되고 이에加하야스피드와 大量生產의 生產樣式은 現代人의 生活道具인 富의 移動을 넘머나 한쪽으로 偏重하게 햇는結果 아모것도업는 生活의 敗殘者가 너머나만흔한쪽에 累進的으로 堆積되고말엇다 이때문에 富力에依하야서만 利用되는 文化의 모든施設은 너머나 富가업는 多數의 社會下層部와는 그關係가 漸次隔離되여가는 矛盾을 蓄積하고잇다。人生에衰弱하고 疾病에 부댓긴 可憐한 行旅病者들을 爲하야는 法律上의 保護가업는限은 死의 自由가남어잇슬뿐이다 日氣가 漸漸寒冷으로向하야 罹災民들의 生……

……肯定하는이때에잇서 當局으로서는 行旅病者救護及生活無能者를 保護하는 方 이것을 法規上으로 保障하는 社會立法의 實行이 잇기를 期待하는바이다。

主要機關破壞及 機密諜報에 活躍

蘇聯駐在獨逸人逮捕에 關한 外務人民委員部發表

【莫斯科十八日發同盟】蘇聯外務人民委員部는 十八日 獨逸人逮捕에 關하야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內務人民委員部는 十一月中旬 蘇聯聯邦의 反亂行動에從事한 獨逸人數名을 莫斯科及 레닌그라드市에서 逮捕하엿다 一黨은 파시스트細胞를 結成하고 蘇聯市民을 誘入하려고 企圖하고 파시스트宣傳에從事하야 不法파시스트宣傳文書를撒布하고 外國을爲하야 國家의機密諜報에 活躍하엿다 그리고 一黨은國家工業機關의 破壞를 計畫하야 蘇聯政府首腦部에對하야 테로行爲를 準備하엿다 逮捕된者는 파로레이코라인、프레르크네히트、데미쉬、르링카우스、피유러、오뻴、헤쿠等인데 目下 內務人民委員部에서取調를 繼續하고잇다

蘇聯回答을 獨大使反駁 會談은 遂決裂

【莫斯科十八日發同盟】莫斯科駐劄獨逸大使슐렌베륵伯은 本國政府의 訓令에 基하야 十七日午後 外務人民委員部에 리트비노프人民委員을訪問하고 獨逸人逮捕事件에 再抗議를하엿다 席上리트비노프人民委員은 逮捕된獨逸人의 陰謀叛亂行爲에 對하야 逐一實例를들어 强調하야 特히 左와如히 述하엿다

一、蘇聯政府는 自國領土內에 잇서서 나치스機關의 反蘇的諜報테로活動을放任하여둘수는업다 如斯한組織을 摘發한以上 蘇聯官憲側이 國土保全의 見地로부터 此等分子를 檢擧取調하는것은 全然當然하다

一、나치스黨이 世界各國에 그支部網을 펴고 잇는것은 周知의事實임으로 蘇聯邦도 드듸어 맞쇼化를 免치못한다

一、但 取調는 可能한限 迅速을期하야 比較的嫌疑가 稀薄한 一名은近近釋放하야 國外에追放할豫定이다

右에 對하야 슐렌베륵大使는리트비노프人民委員의 主張을 反駁하야 會談은 드듸여 決裂되고말엇다

乾坤一擲의 總攻擊!

가바레로首相計畫

首都政府軍數十一萬五千名 叛軍數는 六萬에 不過

【倫敦十七日發同盟】權威잇는側으로부터의 報道에 依하면 西班牙首相가바레로氏는 叛軍에對하야 乾坤一擲의 總攻擊을 試할 計畫으로 後方死守를 行하과同時에 二萬의 義勇軍으로서 세폰、르레도바르베스、아랑페스의 各叛軍陣地를 衝擊할作戰이라한다 現在 마드리드政府軍은約十一萬五千을 算하고잇는데 一方叛軍은 總勢六萬中二萬五千은 南部 二萬은 르레드에 一萬五千은 北方及東北方에 布陣하고잇다한다

西叛軍때문에 蘇聯兩貨物船迴航

【莫斯科十八日發同盟】莫斯科에 達한 情報에依하면 蘇聯貨物船 스로-아야·피아트레이레르카號及 메트로스키-號는 十七日黑……

軍事會議結果 山西軍應援決定

綏遠救援次閻氏에出動勸告

蔣氏太原行目的

【上海十八日發同盟】中國側報道에依하면 太原에 飛來한 蔣介石氏는 十七日午後六時 閻錫山氏邸의 歡迎會에 臨한後 午後八時半부터 北正街四省指揮部에서 軍事會議를 召集하고 閻錫山、趙戴文、徐永昌、楊愛源、王世克、朱綏光、錢大鈞、溫恩伯、孫楚等 中央、山西의將領其他出席 會議는 深更에 及하얏는데 山西軍은 中央으로부터 武器彈藥의 補充을 어더서 可能한限 綏遠省歸化城 平地泉及 包頭方面에 應援하기爲하야 出動을決定하고 同時에 山西省에는 다시 九個師團의 中央軍을 增遣하기로 決定한模樣이다 또 蔣介石氏는 當分 太原에 滯在하고 中央軍第二十五師 關麟徵氏의 平地泉到着을 기달리여 同地에 進出하야 自身指揮 督戰에 當한다는 報告가 잇다

【上海十八日發同盟】蔣介石氏의 太原行은 綏遠의 情勢緊迫을 口實로 山西軍을 綏遠에 出動시키기爲한것이라한다 卽閻錫山氏는 蒙古軍이 長城을넘어서 山西省에 侵入치안는限 傳統의 保境安民主義를 직혀서 綏遠支援을 行치안코 自己勢力의 保存을 圖하기로 決定하엿다 右態度를 看取한 蔣介石氏는 自身山西省에 進出하야 蒙古軍勢力이 豫想以上으로 優勢하고 綏遠이 亡하면 山西도 危殆하다고 閻錫山氏에對하야 直接談判함으로써 山西軍의 綏遠出動을 强要한것인데 山西軍이 綏遠에 入한後는 太原을 비롯하야 山西要地에 全部中央軍移駐를 豫定이라한다

鐵道를切斷하여 蒙古軍의進入阻止

【北平十八日發同盟】平地泉으로서 綏遠防禦의 最重要據點으로 死守하는 綏遠軍은內蒙軍이 前線을 突破하는때에는 곳平地泉에殺到할것이 必然的이므로 벌서부터 平綏線切斷을 計劃、大同、平地泉間及大同高陽間의 二個所에서 鐵路를切斷하고 進入하는蒙古軍의 軍需品輸送을 阻止하려한다

時事漫畫

그맛치가너무커서 가지일할 사람이나 설것갓지안수

山西中央軍出動時는 綏遠問題重大化

軍事會議結果가 注目

【北平十八日發同盟】十七日 蔣介石氏는 十八日午前太原에到着한 閻錫山、徐永昌、王靖國等山西系主要將領을招致하야 對綏遠軍事會議를開催하엿다 同會議에서 包頭五原方面의 守將王靖國氏로부터 現地情勢를 詳細報告하야 內蒙古軍은 이미陶林地方의 攻擊을開始하엿스나 內蒙軍의 眞意圖는綏遠의 西北部攻略에잇슴을 說明한後 그對策을 協議하엿는데 萬若山西에잇는 中央軍이 綏遠戰線에 出動하게되면 事態는 重大化할것으로 綏遠軍은 內蒙古軍의 飛行機에 對抗하기爲하야 中央軍飛行隊의 大擧出動을要求하고잇고 蔣介石氏가 이를容認한다하면 容易치안은 事態에進展하게되여 太原會議의 內容은 綏遠問題의 今後動向을 決定할 重大한 契機가되리라고 注目하고잇다

綏北形勢緊迫 不遠大衝突豫想

【天津十八日發同盟】中央及傅作義氏의 綏遠에對하야 蒙古軍은 去十四日商都一帶에 駐在한 蒙古軍은 閔漢義勇軍이라고치고出師의 通電을 發하야 包頭方面으로 向하야 一部軍事行動을 이르키엇는데 이와同時에 烏蘭察布盟內의 四子部落族을 비롯하야 急遽히 參集하는者만허서 近近綏北地方에서 傅作義軍과의 大衝突이 豫想되게되여 形勢자못 緊迫하고잇다 綏北方面의 軍事行動과同時에 中央軍陶林의 第二十五師의 一部는 벌리 寧夏省에 迂回作戰에 나가 寧夏西方 할豫定이다

孚氏華府出發 米洲平和會議出席次

【華府十七日發同盟】루스벨트大統領은 米洲平和會議에 出席하기爲하야 長男젬스氏及 陸海軍武官同道 十七日 午後八時十五分發列車로 華府出發 찰스톤에 向하엿다 十八日朝찰스톤으로부터 巡洋艦인디아나포리스號에 搭乘 카리브海上에서 釣魚의 樂을 한後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一千三百浬의 航海에 나갈豫定이다 但 航行中도 無線電信으로 各州와 連絡하야 一般內政에 指示할豫定이다

農林省再優活要求

【東京電話同盟】農林省은 復活要求結果 約六千萬圓이 承認되엿는데 農林關係인 農村負債整理에 關한것은 依然承認되지못하고 農地制度、特別助成制度等은 大削減을 當하엿슴으로 農林省에서는 右를 中心으로 再優活要求에對하야 大藏省事務當局과 折衝을 開始하엿다

行政機構改革問題

財閥政黨進出로 政府는漸次後退

(二) 金翰容

軍部가 行政機構改革을 企圖한것은 멀리 五、一五事件以後에 出現한 齋藤內閣時代이엇섯다。當時의 靑年中堅將校는 機構改革의 必要를 痛感하고 여러가지로 調査硏究를하고 各方面의 意見을 聽取한다음 齋藤內閣으로하여곰 이機構改革을 시키려하엿스나 終乃 實現되지못하고 이것이 岡田內閣으로옴겨 國策審議會와 調査局의 形式으로出現하게 되엇다。勿論 岡田內閣의 審議會가 最初부터 內閣의 補强工作을 主眼으로 하엿든것만큼 純全한 政略的産物에 不過하엿고、또한 그結果에 잇서서 何等 이러타할 收穫을 거두지못하기는 하엿지마는 調査局이 行政機構改革의 先驅가되엿든것만은 事實이다。그래서 將來의 發展만은 이미 豫約되여잇섯든것인데 今回의 二、二六事件으로 合法的改革의 必要性은 各方面에서 要望하는바이어 集約的 全體主義的國策遂行의 必然性은 드듸어 그度를 加하게되엇든것이다 이에 廣田內閣은『庶政一新』『一死奉公』의 紹介와함께 事件의 뒤를바터 組閣되엿든것인데 그때에 發한 廣田聲明을 보건대

近時 社會各方面에 亘하야 弊害가 漸積하고 國民生活에 對한 重壓이 漸加하려고하야 各種의利害가 各處에서 對立衝激하는 바가잇서 建國의 大精神에 背戾되어 國家의 憂患이 莫大於此로다…然政의 臣革은 지금에 畢히 作用運營만에서 그完璧을 期키 難하므로 吏道 振肅과 行政機構의 更新이 必要하게되엇다……

고 述하야 歷代內閣이 組閣當時에 羅列한 常套語인 國民精神의作興이니 吏道의刷新이니、産業의 振興이니 하는것以外에 거긔에는『國民生活의 安定』과『行政機構의改革』을 强調하야 非常時內閣에 알마즌 新鮮味한 氣勢를 보엿다。事實 廣田內閣의 使命도 이곳에 잇섯든것이다。그러나 肅軍工作의 進行과 함께 財閥政黨의 進出로 財政經濟政策의 急轉換의 決意를 促한 馬場藏相은 再聲明을 發하지 안흘수업는 狀態가되엿고 議會는 軍部、官僚가 意圖하는 改革을 感情的으로 憎惡하야 電力問題가튼것도 幾多의 反對와 障害로 그 實現은 容易치 안흘것이라 이러한 諸事情은 從來의 自由主義的 行政機構의 缺陷을 暴露하고 急速 行政機構改革의 必要를 痛感케하야 그 前提가되는 一方、他面으로는 內閣의 前進的改革을 後退케 하는 微妙한 情勢下에 軍部는 益益 行政機構改革의 急速實現을 要望하는데 對하야 政府는 될수잇는데로 現狀維持로 나아가려는 傾向이 漸次 濃厚化하게되엇다。지금에 行革問題가 政府對軍部間의 重大問題化 하게되든 始初는 여긔서 비롯한것이엇다。

廣田內閣의 所謂 七大國策은 七月上旬부터 編作하야 여러가지 迂餘曲折을 經한다음 八月末에 꼿나게된 이른바 國策決定閣議에서 決定되엿든 周知의 事實인바 그 七大國策은

一、國防의 充實
一、敎育의 刷新改善
一、中央地方을 通한 稅制의 整備
一、國民生活의 安定
一、産業의 振興及貿易의 伸長
一、對滿重要策의 確立
一、行政機構의 改革

으로서 行政機構改革은 七大國策의 一項目으로서 挿入되엇지마는 그 決定까지의 裏面事情을 들어다보면 政府가 最初부터 이問題에 對하야 熱意가 업서 消極後退的態度를 取하엿든것을 窺知할수가 잇스니 卽閣議에서 正式決定되기前에 政府가 作成한 國策項目中에는 組閣當時의 聲明도 忘却한듯이 行革에 關한 項目이 除外되고 잇섯다는것이다。이것을 알게된 軍部는 寺內陸相으로하여곰 內閣에 對하야 重大抗議를 提出케하엿는데 이에 놀랜 廣田首相은『以上 六大國策實現에 必要한 行政機構의改革』이란 一項을 挿入하야 背面을 糊塗코저하엿스나 軍部의 容認하는바되지 안허 마츰내 不得已『以上 七大國策實現에 必要한』이라는 條件附的 文句를 削除하고 一條項으로 고처 六大國策에 加하야 七大國策으로 한것이라고한다。이와가티하야 行政機構改革을 國策의 하나로 決定하기는 하엿스나、元來 이에 對한 熱意가 不足하엿고、또한 이것의 具體的實現에는 突破하여야할 難關이 一二가 아닌것만큼 遷延에 遷延을 거듭하는 모양이오 改革에 着手하고저하는 氣色이 보이지 안헛다。이에 寺內陸相은 優柔不斷으로 逡巡하고잇는 廣田首相에게 陸海兩相의 共同提案의 形式으로 文書로써 行政機構의 改革意見을 提出하게되엇스니、이것이 去九月卄一日의 일이엇다。

滿洲金融强化次 興業銀行創立

在滿朝銀卄個所支店은讓渡

十八日藏省正式發表

滿洲國政府에서는 金融統制를 强化키爲하야 滿洲銀行 正隆銀行을 合倂하고 새로히 滿洲興業銀行을 創設키로 되엿슴으로 在滿朝鮮銀行支店 二十個所의行員은 全部新設銀行에 讓渡引繼키로 決定한바 十八日大藏省으로부터 正式으로 總督府에 入電이잇섯다 新銀行에는 松原朝銀副總裁와 松田理事가 新銀行重役으로就任키로되엿다

사랑그로佛內相急逝

【리-르十八日發同盟】佛國內相 社會黨出身 로잘·사랑그로氏는 十八리-르에서 急逝하엿다

人事·集會

◆湯村辰二郞氏(京畿道知事)巡視次로 十九日 水原 振威 安城 龍仁方面에出張

◆張 勉氏(東星商業學校長)新任人事次本社來訪

◆金光洙氏(本社營業局長)大阪出張中이든바 十八日午後三時二十分歸社

夕刊後市況 十八日

◆東京短期◆ 後引 高値 低値
東新 一四三·三〇 一四三·六〇 一四三·一〇
日產 八三·五〇 八三·六〇 八三·五〇
◆大阪短期氣配◆
大新 七一·八〇 (不變)
鐘新 一七九·七〇 (一〇低)
日產 八三·八〇 (一〇低)
東新 一四一·三〇 (不變)
◆橫濱生糸後引◆
當限八七一 一〇〇先限八四四〇〇
◆三井人絹後引◆
當限 六六〇〇先限 六三四〇

議院制度調査會

陸相不出席通告

【東京電話同盟】梅津陸軍次官은 十八日午前十時四十五分首相官邸에 藤沼翰長을 訪問하고 陸軍의 議會制度改革에 關한 意見은 去六日閣議席上 寺內陸相으로부터說明하야 明瞭하며 그說明內容은 同日陸軍省으로부터 發表되엿슴으로 그以上 陸軍으로서는 더說明할수업다 따라서 이點에 對하야는 首相은 陸軍의眞意를 諒解하고 善處하기바란다 陸軍으로서는 寺內陸相의 議院制度調査會出席을 拒否할方針이다 라는旨를 傳하고 會見五分間에 卽時辭去하엿다

空氣銃 刻印付 無税 組合 製造
アダテ型 十二圓 ヱイナ型 八圓 スジー型 二圓五十錢
合名會社 常盤號銃砲店 大阪市南區高津四番町一番地

急告 軍手軍足 製造家優待大募集

蓄音器 レコード 小林蓄音器 大阪市東區之町

備へよ 電氣フトン 寒氣襲來 玉造電氣製作所 特約代理店募集 カタログ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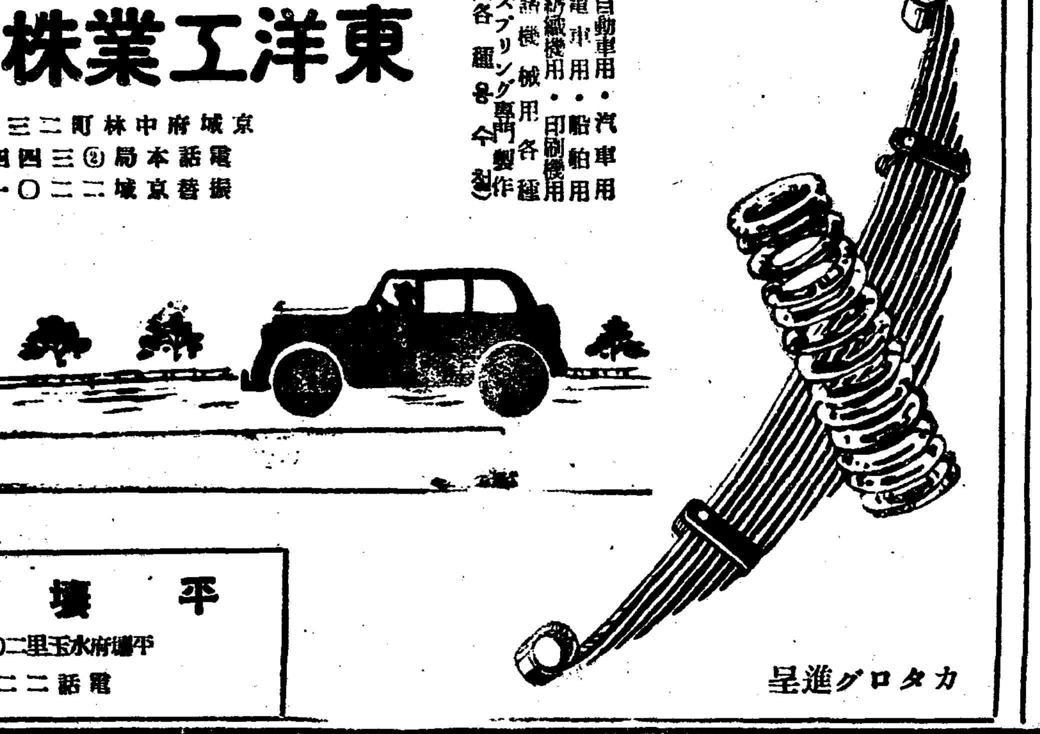
特約店募集 大阪で最古の製造元 市川セルロイド工業所 眼鏡卸に限る! 商賣? 小資本で有利な トテモ利益のある

ワイシャツ カラー ナイト印 柳田シヤツ製造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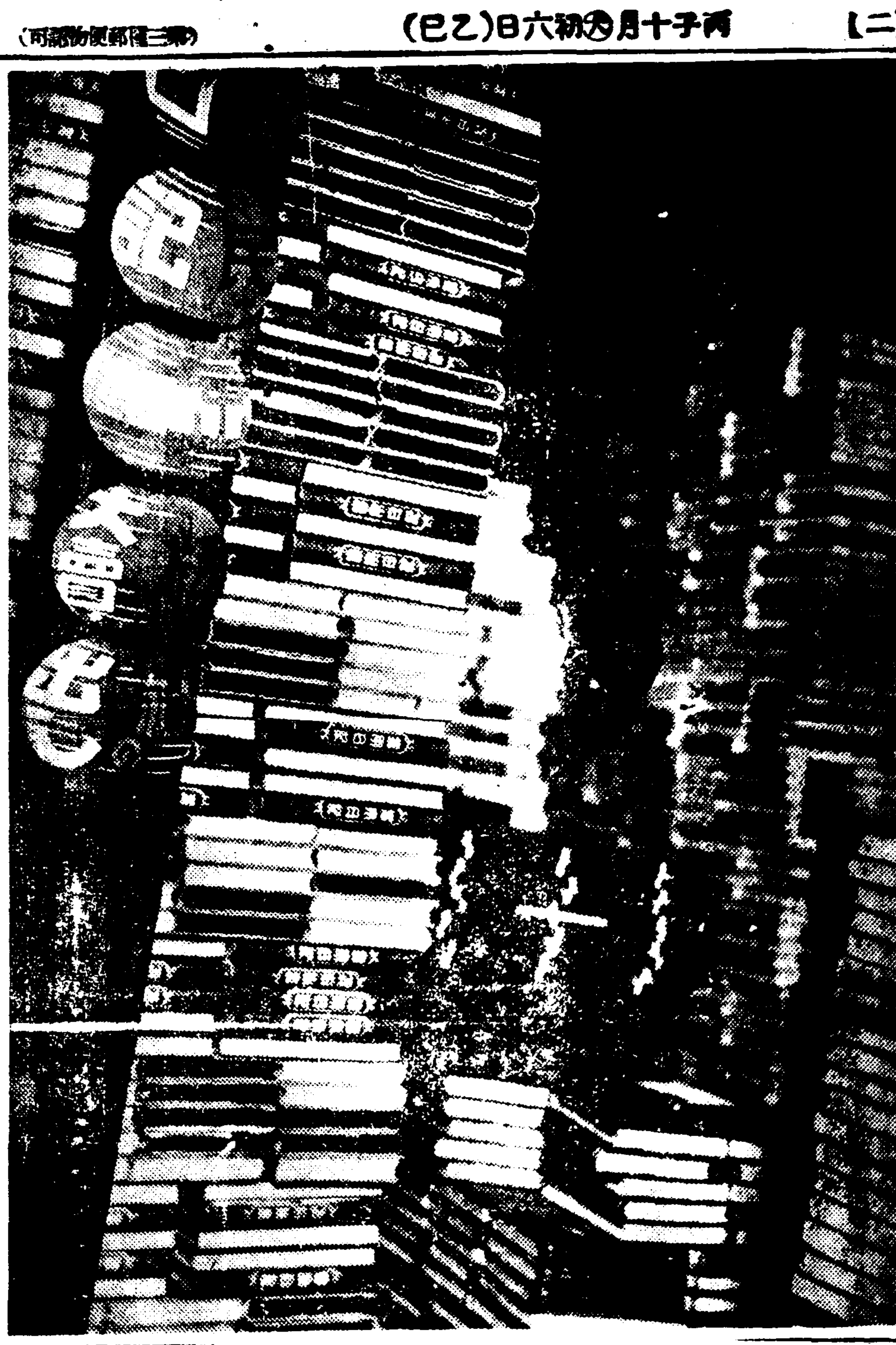
製菓機械 カタログ進呈 今西製作所

우동용豆送風機 五金商會 大阪市西區

スプリング界の覇王!
東洋工業株式會社 京城府中林町二三九番地 電話本局③四四四四番 振替京城二二〇一八番
營業課目 自動車用·汽車用 電車用·船舶用 紡織機用·印刷機用 諸機械用各種 スプリング專門製作
カタログ進呈
平壤支店 平壤府水玉里二〇一番地ノ一號 電話二二六四番



時計 大廉賣 (商報進呈) 特約店大募集 合名會社 三一洋行 朝鮮新義州
チドリ椿香油 チドリ椿ポマード
センター ストーブ 一点非無한 最新型 有煙灰에無煙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圓
桃花劇場 馬山桃花町 十一月十九日부터三日間 ◇米國달맛치프리덕金特作日本版 冒險王달맛치 ◇마키노超特作 切られお富
朝鮮日報 江華支局 電話三十一番
朝鮮日報 釜山支局
輕便洋服收納器 一個代金二圓九十錢 柱掛洋服收納器 一個代金一圓八十錢
伊藤利商店



新年의先驅 店頭에나온 日記册

膨脹京城의憂鬱

失業者七千百名에 細窮民九萬八千

京城府社會課調査十月一日現在의集計

昨年보다 모두增加

경성부 사회과에서 시월일일현재로 조사한바를보면 실업자(失業者)가 칠천일백팔십사명이나 되고 세민(細民)이 일만구천일백구십오호에 그인구는 팔만칠천사십명이며 궁민(窮民)은삼천일백칠십이호에 그인구는 일만일천일백구십일명이나 되다 이것을 작년의실업자총수 칠천사백칠십사명에 비하면 이백구십명이 감소한 세음이다

그리고 직업이 잇는 사람은 륙만팔천이십사명인데 작년의사만삼천이백십이명에 비하면 이만사천팔백십이명이 증가하엿다 이상의 조사는 급료생활자(給料生活者)와 일용로동자(日傭勞働者)와 기타로동자의 세가지종류를 논하서 조사한것인데 그세별을 보면 다음과갓다

▲급료생활자로 직업잇는 사람은 사만이천구백삼십삼인(작년에는 이만이천칠백륙십칠명)이며 실업자는 이천륙백사십칠명(작년에는 삼천오백이십구명)이다

▲일용로동자는 직업이 잇는사람은 이만일천 삼백오십삼명(작년에는 일만삼천 구백구십팔명)이며 실업자는 이천구백이십오명(작년에는 이천이백칠십칠명)이다

▲기타로동자는 직업잇는사람은 일만삼천칠백삼십팔명(작년에는 륙천사백사십칠명)이며 실업자는 일천륙백십이명(작년에는 일천륙백륙십팔명)이다 그리고 세민은 작년의 오천이백칠십팔호에 이만이천륙백팔십이명에 비하면 호수로는 삼천구백십칠호 인구로는 륙만사천삼백오십팔명이나 증가하엿고 궁민은 작년의 륙백이십팔호에 이천오백오십일명에 비하면 이천오백사십사호에 팔천륙백사십명이나 증가하엿다 이와가티 세민과 궁민이엄청나게 증가하게된것은 경성부구역의 확장으로 증가하기도하엿슬터이나 엇잿든 문화도시인대경성에 한가지 우울한 존재로 볼수밧게 업는것으로 중대한사회문제이다

고무界休業續出 職工은失業慘狀

原料價暴騰·在庫品澁滯로 重大한難關에逢着

국제정세에 따라 군수공업(軍需工業)의 발전은 바야흐로그 절정에 달하려고 하는 요지음 십사일백림전(伯林電)은 독일(獨逸)정부가 국내원료개발사개년 계획을 발표한이래 물자(物資)와 소비절약방침에 궁한 적극정책의 일단으로 래년일월일일부터 국내에서 자리갑 고무종선의 제조판매까지 엄금하게 된다는소식을 전하고잇다 시각(視角)을 비근한곳으로 돌리면 고무원료의 폭등으로 고무공업자의 일대공황시대를 현출하야 경성시내에서도 비교적 고무공장이 밀집하여잇스며 소규모공장을 가장만히 포함하고 잇는 중림정(中林町)과 봉래정(蓬萊町)의 구개소공장의 최근동향은 다음과 가트며 이구개소공장은 현재 남녀직공륙백칠십륙명을 포용하고 잇서 그중에는 조선인고무공업의 최고참자(最古參者)도 잇스나 대체로 영업부진은 난면이나 현재 폐업한 공장이 삼개소에 림시휴업한곳이 일개소 불일간 휴업할곳이 또한일개소가 잇나 더욱지금 조업(繰業)은 계속중이나 약오만제의 삽체(澁滯)된 재고품을 처리할곳이업서 일대난관에 봉착한곳도잇서 임이실업한 직공이 약오분지일가량된다 최근경기(景氣)와 배치되는 이현상은 지금조업중에잇는 직공조차 실업에 직면하여잇스며 고무신을 사용하는 일반소비대중에게도 닥처올 이문제에 대하야는 자못관심을 가지게 하고잇다

錢狂과野獸의떼 賣春을强制한妓生母

머리언저준다는 오입쟁이에게

어름가티 차듸찬기생양모의학대와 고기에 굶주린야수(野獸)가티 덤벼드는 오입쟁이 사나히의 성화에 견듸지못하야 경찰서로 달려가서 구원을 청한 십칠세의 소녀가잇다 그는 경북상주(尙州)사는 김모(金某)의 둘재딸로 시내관수정 박옥희(朴玉姬)의 양딸로잇슨 엄임(粱任)(一七)으로 그는 작년시월에 그의 고향사는 리모(李某)의 소개로 칠년기한에 돈 구십원을꾸어쓰고 박옥희에게 양딸로팔려갓는데 그동안에 기생다웁게노래는별로 배우지못하고 엄마전에는 경기도광주(廣州) 어느주점(酒店) 작부로 팔려가서잇든동안 그곳에서 재산가로 리모(李某)라는 사십삼세되는 남자가머리를 언치여주겟다고 달래므로 서울에 도라와서 잇섯는데 그남자는 그동안에 벌서 십여차나 차저와서 가티자고서는 올때마다 돈십원가량식이나 양모박옥희에게 주고갈뿐이고 머리는 언치여 주지안햇다한다 그런데 십팔일밤에도 그사나히가 또차저왓는데 양모는 자구 그남자와가티가라고 욱이고 그는 지긋지긋하게 덤벼드는그남자와는 다시는 더자기가 실흐므로 생각다못하야 문밧그로뛰여나가 관수정 경관파출소로 달려가서 이와가튼 사실을 고하고 구원을 청하엿다 그래서 종로경찰서로 데려다가 보호하고 그의 양모박옥희를 불러다가 사실을 조사하기로 되엿는데 조사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제시키고 이소녀를 구원해주게될는지도 알수업다한다

東拓의間島移民 今年으로써中止

동양척식회사(東拓)가 간도(間島)지방에서하고잇는 조선농민의 자작농창정(自作農創定)은 이민사업의 하나로서 오개년계획으로 매년십만원의보조를바다 소화팔년부터 시작하야 금년은 네년재며 그실적도 오개년 오천호의 예정가운데서 이미 사천호의 창정(創定)을못내여 대체로 순조로되엿슴이나 선만척식회사(鮮滿拓殖)의 설립에따라조선농민의 만주이민은 동회사가 전부이것을 하기로되엿슴으로중복을피하야 동척에서는 금년으로 이계획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엿다 그리고 동회사가 이미 창정한 자작농을 선만척식에 이관식히는문제는 아직두회사사이에 결정을보지못하엿다고

長白縣下의共産軍!

移住同胞困境不可形言

十個月間襲擊件數四百餘回 今年收穫은擧皆被奪

【咸興】함남도대안의공산군(共軍)은토벌들의 횡포한 략탈(掠奪)은 날로 심하여간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함남도 경찰부에서 집계한바 이주동포(移住同胞)만바든 피해통계를 보면 다음과갓다 금년일월이래 시월말까지십개월동안 공산군(共産軍)들이대안 장백현내 동포촌을 습격한 회수는 사백이십팔회로서 그출동인원수(匪人員數)는실로 오천팔십사명의 다수에 달한다 그리고 동포들의 피해인원(被害人員)도 이천이백사명의 놀날만한수자에 달하는데 습격한공산군(共産軍)은 그팔할이상이 동북인민혁명군(東北人民革命軍)제삼사(第三師)김일성(金日成)이라고하는데 더욱놀납지안홀수바게업다고한다 다시시월한달중의 인명피해만사십사건에 이백사명이나되는데 그중랍거(拉去)가이백일명이나된다 그리고 금품(金品)피해도 일백오건에 삼천사백사십이원사십오전으로 이주동포들의 금년추수는 거이다략탈당하고을고잇는현상이라고 한다

暴惡性의女人네

이웃女子를 두들기고

鍾路署留置場의찬자리身勢

「이웃사촌이라는」 격언도 잇는터인데 도로혀 이웃사람에게 싸움을 거러 구타폭행을 하고 경찰서류치장에 끄울려드러간젊은녀자——가잇다

시내 관수정(觀水町)일백이십륙번지 박모(朴某)의 안해 김란지(金蘭芝)(二七)라는 녀자는 성질이 포악하야 벌서 이웃사람들과 십여차나 싸움을 한탓으로 관할파출소에도 여러번 불려가서 설유를 밧고 부근에서도 평판이 조치못한터인데 십팔일 오후 한시쯤에 그이웃림수명(林壽明)의집에서 백미 한되를 도적마젓스므로 림씨의안해 서언년(徐言年)(三七)이가이웃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잇든중 김란지는자기의 흉을 보는줄로 억지하고 서언년에게 덤벼드러 때리고 차고하야 길바닥에서서로안고 구울면서 란투를하고잇는것을 관수정파출소경관이 제지하야 돌려보내는데 그는오후 두시에 다시서언년을 차저가서 또 구타하므로 재차 파출소로 데려다가 설유하야 돌려보낸는바 오후네시에 또세번재로 독끼를 들고 휘둘르면서 피해가는 서언년의 뒤를 조처가므로 드듸여 관수정파출소경관이 출동하야 그를 붓잡아다가 종로경찰서에 검속하엿다 그의남편은 일을 하려나갓다가 박게서 도라간즉 안해는 경찰서로 붓잡혀가고 젓먹이어린아이만 이 먹고시퍼서 울고잇스므로 어린아이를 등에업고 종로경찰서 사법계문아페가서 우는아이에게 젓 한목음만 먹게해달라고경관에게 애걸하엿스나 거절을당하고 그경찰서마당에서 눈물을흘리면서 방황하고잇섯다

旣決囚엔國防色

未決囚엔白色의囚衣

來明年부터는實施할듯

총독부 법무국에서는 형무소의 죄수복색을 고치고저 연구중이라한다 지난번 형무소장회의에 자문한바도잇섯는데 긔결수(旣決囚)옷은 여튼누른빗(淺黃色)이나 검은빗이나 재향군인옷과가튼 국방색(國防色)가운데서 한가지를 선택하기로하고 미결수(未決囚)는 힌옷을 입히러 이라한다 이것은아마 래명년부터는 실시하게되리라한다

罹災農民十一萬名

【平壤】평양세무감독국관내이평남(平南)황해(黃海)량도의 한해조사는 관계세무서를 독려하여 조사를 진행중이든바 관계십삼세무서에서 평양세무감독국 직세과에 제출된 한발로인한피해면적은 삼만팔천사백사십오정보에 달하는 광대한면적이며 납세인원(納稅人員)은 십만이십팔인 세액은 십마삼천팔백십이원에 달햇다 이가운데에서도 가장피해가심한곳은안주(安州)해주(海州)남천(南川)재령(載寧)등세무서관내이라한다

原審判決대로 二年半懲役求刑

龍山赤色勞組李仁行控訴審

경성부一십팔일오후한시부터 경성복심법원에서 적(荻)재판장주심미테 방청금지속에열린 룡산적색로동조합사건관계자 리인행(李仁行)에관한 치안유지법위반사건공판은 재판장의 사실심리를마친후 검사로부터 원심판결과가튼 이년륙개월징역구형이잇슨다음 오후네시에 폐정하엿는데 판결은오는이십오일에 언도키로되엿다 한다

全州師範校生 發病者續出

【全州】룡산 보병칠십구련대에 군사교련강습을떠난 전주사범학교강습생이백삼십오명중에 일곱명이 장질부사에걸려 방금경성 각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라함은 긔보한바잇섯거니와 그후속발을 념려하야 강습을중지하고 지난 십사일로 전교생은二대로 귀교

密酒犯四四〇件

【陜川】경남합천세무서(陜川稅務署)에서는 주조조합과 밀주방지 교정회등의 기관을통하야 밀주방지에 최선을 다해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일월로부터 시월말현재 범즉자 검거건수가 사백사십 조정건수가삼백사십건으로 벌금액이 이천칠백칠십오원의 거액에달한다고 한다

第十回 籠球聯盟戰 第十一日

奮戰苦鬪끄테 中東、徽文을擊破

善隣、養正、普專各勝

京師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의第十回全京城籠球聯盟戰 第十一日은 十八日午後六時半부터 鍾路靑年會室內코-트에서 이날의 첫번게임인 中學團第二部의 善隣對公民戰으로열린바 다음과가튼 戰績으로 善隣軍이 公民軍을 養正軍이 徽新軍을 모다원싸이드께임으로 이겻다 그리고 興味의 一戰인 徽文對中東戰은 全勝率을 確保하고잇는 兩雄의 對峙인지라 顏달리人氣를 이끄른가운데열리어 悲壯한熱戰끄테 中東이 勝捷하야 培材와 함께 四戰四勝의 全勝率로 首位를占하고잇다 그리고靑年團戰에는普專이「스파르타」를 손쉽게이겻다

善隣43(23 20…14)公民5

【第一次】善隣商業對中等公民戰은 同日午後六時三十三分부터 李惠淳、李文鎬兩氏審判下에 開始한바 結局四十三對五로 善隣軍이 大勝하엿다

養正31(1615…64)10徽新

【第二次】養正高普對徽新學校戰은 同日午後七時半부터 張權、申光浩兩氏審判下에 열린바 三十一對十으로 養正軍이 快勝하엿다

反	得	【養正】		【徽新】	得	反
0	14	白南護	F	黃材三	1	0
1	5	金槇培	F	鄭東燮	2	3
			F	徐弘濟	0	0
1	6	申宗淳	C	秋雨億	0	2
0	2	元裕喆	G	金錫權	1	1
1	4	張寅壽	G	張元一	0	0
			G	宋在喜	6	3
6	31				10	9

反	得	【公民】		【善隣】	得	反
4	1	李東宰	F	林伯基	[illegible]	2
2	2	金泳秦	F	朴元模	9	0
1	0	崔盛煥	F	林在善	0	0
1	0	石南麟	C	李衡珣	4	0
1	0	金龍俊	C	金仁植	2	1
3	0	朴鍾浩	G	金鍾直	1	0
1	2	朴相新	G	朴允植	2	4
			G	韓鍾俊	2	1
3	5				43	8

中東27(1710…1010)20徽文

【第三次】中東高普對徽文高普戰은 同日午後八時二十分부터 金振秀、李惠淳兩氏審判下에 열린바 兩軍應援團의聲援裡에 大激戰을演하드니 前半戰에는十對十 同點、後半戰에드러가 中東攻擊熾烈하야 結局二十七對二十으로 中東軍이 快勝하니 이에徽文의全勝塔은 드듸어 崩壞되고야마럿다

普專62(2963…147)21스俱

【第四次】普專對스파르타俱樂部戰은 同九時二十五分부터 張權、丁相九兩氏審判아래열린바 結局六十二對二十一로 普專이快勝하엿다

反	得	【徽文】		【中東】	得	反
3	13	姜日東	F	李龍寬	14	1
2	1	尹相燮	F			
0	0	任相奎	F	金萬壽	0	1
1	1	黃奎鳳	C	孫仁權	5	1
1	0	申鳳浩	G	崔昌欽	2	1
			G	許松	0	0
			G	鄭元澤	1	1
3	5	李明天	G	金永喆	5	4
10	20				27	9

第11日 現在

【中學團一部】

順位		試	勝	敗	率
1	培材	4	4	0	1.000
1	中東	4	4	0	1.000
2	徽文	3	2	1	0.666
2	普學	3	2	1	0.666
2	養正	3	2	1	0.666
3	徽新	5	2	3	0.400
4	道商	2	0	2	0.000
4	一高	7	0	7	0.000

【中學團二部】

順位		試	勝	敗	率
1	協實	4	4	0	1.000
2	中央	3	2	1	0.666
3	二高	7	4	3	0.571
4	京工	4	2	2	0.500
4	善隣	4	2	2	0.500
4	普成	2	1	1	0.500
5	公民	4	0	4	0.000
5	漢商	2	0	2	0.000

【靑年團】

順位		試	勝	敗	率
1	延專	3	3	0	1.000
1	普專	3	3	0	1.000
1	靑友	2	2	0	1.000
2	스俱	4	2	2	0.500
3	타籠	3	1	2	0.333
4	高麗	3	0	3	0.000
4	南目	4	0	4	0.000

今日의運動

▲籠球=全京城籠球聯盟戰第十二日 徽文高普對京畿道商(午後七時二十分) 스파르타籠球俱樂部對靑友籠球團(午後八時十分) 鍾路靑年會室內코-트

藥專을擊退코 普專러비勝

全日本高專專門러비大會 朝鮮豫選·普成專門對藥學專門戰은 十八日午後三時五十七分부터 龍山新球場에서 原(主)李秉禧、藤瀨(線)三氏審判下에 普專킥어프로 開戰한바 兩軍 開戰劈頭부터 白熱戰을演하야 一進一退로나아가드니 普專軍前半戰最後一分을 남기고 藥專門前二十五碼線內에서 混戰다가 宋斗山君의右側『드라이』와 金敬洙君의『킥』으로一擧五點을어더 『드』를한재 前半戰을마치고 後半戰에드러가藥專은奮然히逆襲하야 同十二分에 松永君의 單獨突入이잇서 普專軍一時는 危機에處하엿스나 FB呂運英君의 善防으로헛되이물러섯다 그리하야普專軍은A級에서 水原高農對京城醫專의勝者와 對戰케되는바 A級에서優勝하면 B級優勝팀과 決勝戰을行하기로되여 여기서優勝한學校팀이 朝鮮代表로選定되리라이다

【藥學專門】 FW 崎村 被原 澤 麻木 原田 島井 永塚 波本 HB 尾木 李 野相 當齊 TB 頭吉 江土 FB 松大 難橋

【普成專門】 FW 動林 山得 奎鎬 洙山 培澤 萬鎬 浩燮 英 HB 基東 仁寶 宗敏 斗誦 性商 明仁 TB 運 金金 劉裵 朴裵 FB 金宋 金韓 朴崔 李許 洪

男女老少

●補藥은 洋藥보다 漢藥이 第一! 漢藥中에는 百補丸이 斷然 第一 그럼으로 百補丸은 各界 貴族、兩班、朝野名士 諸氏의 賞讚 推奬 愛用을 밧는바입니다

一、老年이쓰면 更少年 이되고
二、壯年이쓰면 陽氣가大發하고
三、婦人이쓰면 煖宮 胞胎하고
四、靑少年이쓰던 精神이 聰明한 秀才가 됩니다

이런분은쓰시요
▲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蒼白한사람
▲性慾이衰하고 活氣가업고 手足과 下腹이 恒常冷한사람
▲肺가不足하고 허리가압흐고 머리가무겁고 精神이흐리고 神經이衰弱한데 特効함
▲消化不良、체증、속병가튼것은 어느때 업서젓는지알지도 못하게 업서집니다
▲筋骨이 튼튼하여지고 氣血이 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 眼精力이됩니다
▲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 腦、性、神經衰弱人은 더욱速効합니다
▲눈이밝아지고 皮膚가 조와지고 血色이조와짐니다
▲全身 五臟六腑를 다강補하오니 참말 安全한 豫防藥補되는快感은 百補丸服用人이라야만 알것입니다
▲過飮過色人에게는 特別速効합니다
▲男女老少 다 좃습니다

世界第一記念
▲先着一萬人限無料進呈
躍進日本쓰포-쓰는世界第一
今回獨逸伯林에서 開催된 萬國聯合大運動會에서 榮光의 一等! 國民保健을 爲하야 政府는 一等! 健康國體로 保健衛生을 獎勵하는 이때 最高의健康劑 百補丸本舖 天地가 振動하는이때 同胞의健康을爲하야 또는 世界的쓰포-쓰를 平和堂株式會社로서는 紀念하기爲하야 損益不拘하고 大大奉仕的으로 先着一萬人限하야 百補丸十日分一劑 사시는분께 百補丸(十日分中劑入)一箱式을 無料進呈하기로하엿사오니 勿失好機하시고 남보다먼저 一日速히 注文하시요 一萬人이차면 無料進呈은中止합니다
▲注文書에는必히「贈呈品」注文이라고明記하시요

京城府堅志町五·一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話光 六三二番·振替京城五番

勿失好機
百補丸一箱式無料進呈期限도 滿期迫到 不遠締切되오니
機會를일치말고 一日速히注文하시오

不老長壽·更少年藥
高貴漢方
補血強精

展料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周旋하면 周旋人에게一劑無料進呈

藥價 一劑特價拾圓·重用二十圓

京城版

柴炭실은船夫 失足하야溺死
仁川近海에서

【仁川】―서산군대호지면우산리(瑞山郡大湖芝面牛山里) 박대식(朴大植)의배에 시탄을가득실고 지난 십륙일인천으로오는길에 영흥도(靈興島)근방에서 풍랑을만나 선부 박근식(朴根植)이가 실족하야 바다에떠러저 마침내익사하고말엇다한다

大京城의掩鼻面
無便所家屋이壹萬七百戶
塵芥箱업는家戶四萬四千
開城仁川도同比例

경긔도경찰부위생과에서는 수일전에 경성 개성 인천삼부(府)의 변소와 쓰레기통설치유무를 조사하엿든바 십팔일에 그수자를 전부종합하엿는데 그것을보면 삼부의 호수십오만사천사백사십구호가운데서 변소를 설치한집이 일만오천이백구십호며 변소가업는집이 이만오백오십구호이다 팔십륙퍼센트는 변소를 설치하엿고 십사퍼센트는 변소가업다

그리고 쓰레기통은 설치한집은 구만삼천일백이십사호이며 설치하지안흔 집이 륙만일천이백사십칠호인데 륙십퍼센트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엿고 사십퍼센트는 설치하지안햇다 변소가업고 쓰레기통을 설치하지안는것은 위생문제에 영향이만흔바임으로 관할경찰서로 하여금 될수잇는대로 모다속히설치하도록 독려할터이라한다

전긔수자를세별해보면 경성부내 이백칠십사정(町)에 호수십이만륙천오백칠십구호나되는데 이가운데서 변소를 설치한집은 십만팔천칠백륙십이호이며 변소가업는집이 일만칠천팔백일십칠호나되며 그러고공립공동변소가 륙십칠개소 사설공동변소가 일천이백구십륙개소가 잇스나 일만칠천칠백호나 변소업는집들이 이 공동변소를 다 리용할수 잇는바가 아니므로 변소업는집들은 결국 길거리나 개천에내여다버리지안는가 추측된다

쓰레기통을 설치한집은 팔만일천팔백사십삼호이며 업는집은 사만사천팔백삼십일호나되며 공동쓰레기통도 삼천사백오십구개가잇다

인천에는 삼십일정(町)에 호수일만칠천사십구호인데 변소를 가진집은 일만오천사백팔십일호이며 업는집은 일천오백륙십팔호이며 쓰레기통을 설치한집은 구천일백오십칠호이며 업는집은 거의반수나되는 칠천팔백구십이호이다

그리고 개성(開城)은 십삼정(町)에 호수는일만칠백구십일호인데 변소가잇는집은 구천오백사십칠호이며 업는집은 일천이백사십사호이다 공설공동변소가 이백사십사호 사설공동변소가 이백여섯개가 되는것은 다른도시에서는 보기드문일이다 쓰레기통은 겨우이천일백십팔호밧게 설치되지안햇고 팔천륙백칠십삼호나되는 대다수는 쓰레기통을 가지지안햇다 그대신으로 공동쓰레기통이 오백오십사개나 설치되여잇다

膨脹京城의癌
汚物處置圓滑化
四里四方近郊農家에輸送
汚物調査委員會에서決議

경성부오물조사위원회(汚物調査委員會)에서는 십칠일 오후에 경성부청에서 제삼회위원회를개최하엿는데 팽창하는 경성부의 똥 오줌처치문제는 위생적으로나 풍기상으로 중대문제로 그처치방법에 대하야 여러가지방면으로 그방법을 강구하여보앗스나 언제든지 예산(豫算)이문제되므로 우선 명년도부터 상당한 예산을세워 경성부에서 사리(四里)사방에잇는 농촌으로 공급할방침을 세우게되엿다한다

금년도에 경성부에서 직접처치하게된 똥 오줌은 륙십오만석이나 명년도부터는 적어도 팔십오만석가량은 될터이므로 여테까지의 똥 오줌처치방법으로서는 도저히 원만한처치를 하지못하게 되엿스므로 명년도부터는 궤도(軌道)를 부설하야수송하기로하고 혹은 자동차나마차로써 직접농촌으로 수송공급하기로 되엿다한다

五個公設市場
賣上高七萬圓
十月中의數字

경성부 다섯곳의 공설시장에서 지난시월 한달동안에 판매액수는합계 칠만오천이원인데 전달(구월)에 비하면 일만삼천사백사십구원이나 증가하엿다 시장별로보면

▲화원정시장 이만이천오백삼십칠원
▲룡산시장 일만삼천이백륙십구원
▲서대문시장 일만이천일백사십이원
▲마포시장 일만팔백오십원
▲영등포시장 일만일천이백오십사원이엿다

그리고 시탄채소시장세곳에서는 합계 륙천팔백이십구원어치를 팔앗는데 전달(구월)에비하면 일백사십구원이 증가하엿다

▲동대문시장 일천구백이십일원
▲서린정시장 일천이백원
▲서대문시장 삼천칠백팔원

으로 서대문시장에서 제일만히 매매되엿다

街頭의不明朗線
乞人群을一齊退治
婦女子에게恐怖感까지
鍾路署에서掃淸工作準備

구역확장과 도시미화에 따라 차츰자랑스러운 대경성(大京城)이 구현되여가는 서울거리에는 이 그반면보기흉한 현상이 도처지 안타 그중에도 금년에는 례년보다 유달리 빈궁민이 불엇는지 거리마다 걸인떼가 살아질때가업고 특히 광화문통이니 종로한복판거리의 전차정류장부근에는 보기에도 끔직한 어른아희 거지들이 거진 그곳에서살다시피 그에결하는그들의 영업을하고잇서 길을가는 사람이며 전차를 기다리는손님들에게 깨끗한 동정보다 오히려 더러운 감정을주게하고 그중에도 간혹은 한동정의 강요에는 한층나아가서 중오감까지 부녀자에게는 공포감까지 주고잇다 십팔일시내 종로서 중(仲)부장의 보고에의하면 전긔의 사실은 물론이어니와 아닌밤중 새로한시두시경에 락원(樂園)이니 『엔젤』등카페니 기타료리집 문전에는 언제던지 십여명의 소년거지떼가 모혀잇서서 집으로 도라가는 손님이나 녀급들에게 엉겨들며 또는 녀학생등 부녀자를보면 그더러운손으로거진 옷을 붓잡고까지 동정을 강요하는일이 만허 도시미관상 또는 일반시민에게 큰폐해가 되는것이엿는데 이방게도 일반가정에도 아침저녁끼를 차저드는거지떼들이 례년에 볼수업시 적지안케되여 종로서에서는 금후 이들을 한층더철저히 취체하야 명랑한 경성이 되도록 힘쓸방침이라고한다

仁川體育會主催
中朝鮮蹴球大會
二十二、三日兩日間

【仁川】작금조선의 스포츠계에 만흔공헌이잇는 인천체육회에서는 오는이십이삼량일간 인천구장에서 동회주최와 본보인천지국후원하에 중부조선축구대회를 개최키로하엿다는데 벌서신청단체는 영등포(永登浦)체육회를비롯하야 경인각지의 신청이 쇄도하고잇다는데 신청기일은 오는이십일까지라 신속신청하기를 바란다한다

域外酒洪水로
混亂할販賣戰線
市外酒類小賣商의蹶起와
會社對抗의新事態

부당한경쟁의결과로 주질저하(酒質低下)와 업자의경영난을 타개한다는 취지로 경성세무서(京城稅務署)관내 탁주와약주 생산업자 오십오개 양조장의 판매권(販賣權)을 한손에 거더쥐고 업게에 폭탄적등장(爆彈的登場)을한 경성조선주 판매주식회사(京城朝鮮酒販賣株式會社)가 생긴지 한달남즉한 요사히 (술갑)은 탁주가 한말에 일원오십전내외 약주한말에 삼원팔십전전후하든것이 대번에 각각 이원과오원으로올라가 울주당을 울리게할뿐아니라 소매업자의영업을 교란하는바심하다하야 십칠일 시내앵정정(櫻井町)일정목경성음식점조합 련합회(京城飲食店組合聯合會)에서도 리사회(理事會)를열고 반대의기치를 올리다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수만소비대중을 배경으로하는 이조합의 반대야말로 판매회사의 전도에 엄마적암영(暗影)을 던지는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도 한지역을 국한하야볼때 양조업게를 교란하는 제일큰것은 다른지방에서 양조된 소위외래주(外來酒)가 물밀듯이 흘러드러오는것이니 만일판매회사가 적극적가격을 어대까지 고지(固持)할때에는 이 날로더하야갈것은 정한리치이며 따라서 경성내 양조장의 판매수량은 [illegible] 갈것은 필연의 [illegible] 이리하야 판매회사가 [illegible] 간두의 오날양조게는 주가인상(酒價引上)에따르는 외래주의 침입을 둘러싸고 전에볼수업는 일대혼전(混戰)과 암투(暗鬪)를 보여주고잇스니 이문제의 귀취는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관심을끌게하고잇다는것이다

가을樂壇의掉尾陣
朴景嬉孃獨唱會
篇篇珠玉의當夜의獨唱曲目
來廿一日夜府民館서

가을의악단에 마지막 남기고 갈 커다란선물! 콜로라투라·소푸라노 박경희(朴景嬉)양의독창대회가 오는 이십일일밤 일곱시 부민관에서 열린다함은이미 본지가정면에 수차 보도되엿거니와 양의 예술가로서의 성가와 조선양악게에서의지위가 한층드놉흔것은 널리 세상이 다아는 바이지만 박양이 당야의 연주회로서 다시한번 만장의기염을 토하야 그의온축을피로하고 아울러 금년도 악단의 크다란수확을 낫케할쟈도 모래로밧두하고잇다 만도음악애호가들의 인끼와주목도 이제 절정에달하야 뒤끌코잇슴은 물론이러니와 박양과 더부러 박양의가장큰 원조자가된 『빠ー스』부인의 반주는 한층더색다른면을보이고잇다

이번독창회의 순서곡목을소개하자면 다음과가트니 모두가박양의 득의의곡이요 예술의향기가 무른녹는곡들이다

◇푸로그람

1、歌劇『리고렛트』中에서 베르듸曲
그리운일홈
2、(가) 歌劇『단호이저』中에서 와그넬曲
엘리사벳트의긔도
(나) 솔베지의노래……그리그曲
3、(가) 아베마리아 구노ー曲
(나) 라·스파뜨라 키아라曲
4、歌劇『椿姬』中에서……베르듸曲
아야그대엿든가
休息
5、(가) 鳳仙花……洪蘭坡曲
(나) 메리……金世炯曲
(다) 배노래……金世炯曲
6、(가) 조세린의자장가 고다르曲
(나) 歌劇『칼멘』中에서 비제曲
하바네라
7、歌劇『루치아』中에서 도니제트曲
狂亂의歌

新義州高普
럭비軍入京
一行은覇氣滿滿

西朝鮮에서 獨步的發展을보이고잇는 新義州高普럭비部에서는 甲子園進出에 뜻을두고 於焉三年 인제야 全朝鮮럭비蹴球大會를 目標로 猛練習後 實會를마지 明廿日午後四時부터 京城球場에서열리는 中央의 無敵强陣培材高普와의 準決勝戰에出戰케되여 昨十八日午後三時京城驛着列車로 元氣旺盛하게入京하엿다 一行二十三名은 同部의創設者인 李一成氏引率아래 市內武橋町八五松屋旅館에 旅裝을풀고 當日午後四時부터 京城다 場에서入京初練習을 行하엿다

梨專主催·本社後援
全朝鮮女子籠球
各校陣容과部署決定

梨花女子專門學校 主催와 本社後援의 第三回全朝鮮女子中等學校籠球大會는 來二十一日(土)午後一時부터 大觀町梨專體育館에서華麗한幕을열기로되엿다 關北의覇者 咸興永生女高普와 初出戰의 元山樓氏女高普의 活躍이注目할바이며 昨年의 王座를차지한 開城好壽敦女高普는 連續優勝의 意氣를 품고 勇躍출장케되엿다 그리고 中央에서는 第一回의優勝旗를 獲得하엿든 培花女高普가 今年이야 期於코 이기리라는 가장자신잇는 自負를갓고잇스며 梨花女高普도한 이에 못지안는 關志로서 出場할터이므로 當日의熱戰은 벌서부터 豫期하고잇다

大會任員

▲會長=金活蘭
▲副會長=徐道保
▲委員長=朴季愛
▲本部委員=徐道保、[illegible]、尹[illegible]淳、高鳳[illegible]
▲審判委員=金振秀、宋[illegible]、李[illegible]、孫[illegible]
▲記錄及時計委員=[illegible]、李正相、朴[illegible]
▲[illegible]委員=[illegible]、[illegible]、李[illegible]、[illegible]、[illegible]、徐斗銖

各校의陣容

★…元山樓氏女高=監督 [illegible] 主將 金[illegible] 選手、[illegible] 李敬淑 李貞玉 白[illegible]女 李[illegible]
★…咸興永生女高=監督 [illegible] 主將 朱[illegible] 選手 金玉順 [illegible] 黃[illegible]玉 [illegible] 金貞烈 安寶玉
★…開城好壽敦女高=監督 [illegible] 主將 金貞玉 選手 金[illegible] 李京順 李[illegible] [illegible] 任[illegible] 朴[illegible]仙 尹[illegible]
★…培花女高=監督 朴仁[illegible] 主將 [illegible] 選手 孫[illegible] 李[illegible] 金妙中 李[illegible] [illegible] 金玉心 李玉[illegible] 申[illegible]淑
★…梨花女高=監督 [illegible] 主將 朴[illegible] 選手 [illegible] 宋[illegible] 朴[illegible] 李月今、金貞順 宋良近女 張淑[illegible]

本年掉尾の豪華陣容！今日の問題を把握して明日へ!!

婦人公論 十二月號 さあ出た!!

定價・五拾錢

オフセット三色版 北歐神話ー夕 (子に語る母の讀本) 野上彌生子

してはならぬ戀に惱む若妻へ 火にも水にも 今井邦子

婚姻の歷史 (結婚とは？ その歷史をたづね、その意義を檢討し、再批判する西村博士の絕著の一文！) 文學博士 西村眞次

紀行隨筆・山陰の旅 (鋭利な女史の眼に映ずる山陰の印象 そこに描出される風物と人物の姿は？) 山川菊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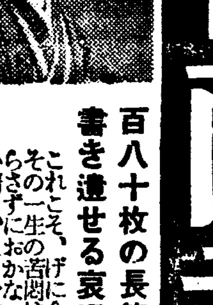
文豪チッケンスの生涯……松本泰

五十萬弗の遺產をめぐる子寶競爭

親の違ふ姉妹……(實話特輯)
血が呼ぶ……難波のぶ子
お母ちゃん誰？……藤田道子
姉妹と名乘つて……吉野ツヤコ
……波田さよ子

批判にかへて 競馬コーフン記 森田たま サトウ・ハチロー ヨコヤマ・リウイチ

自叙 日蔭者の告白 故曾禰敏子記
百八十枚の長篇手記・全文掲載――逝ける名門の遺兒曾禰敏子さんが此の世に書き遺せる哀切の自叙!! これこそ「悲しき女の一生」である。



妹敏子の死(遺書及び日記) 實兄 曾禰又男

☆死を思ふ娘へ 岡本かの子

時事總評(☆度制の郡部☆チンリの生學☆ 那支の後の其☆金獻的治政) 杉山平助
自分並に周圍のこと(僕の眞) 中嶋雄作
新レコードから……あらえびす
(懸賞)スターのクリスマス・プレゼント
新戀愛論(第五講) 杉山平助 武器・爆發・消火

マダム・アダムスと女史と下田歌子女史 (一篇讀切) 富一郎

「さきがけ殉死」の眞相 石橋良一

妹よ、兄は恥ぢてゐる 村社講平

癩患者と十八年・神の如き女性

「お蝶夫人」自傳・三浦環

★百圓以下の收入で貯金が出來る迄
☆月收百圓の官吏☆六十圓の會社員
☆六十三圓で家族五人☆月給九十八圓の中等教員
☆六十一圓で家族五人☆
□歲末防犯・留守居の奥樣心得帖 吉野三郎
□歲末やりくり帖(質屋の話)
□稅制整理案とお臺所……小汀利得

★連載長篇小說★
落葉日記 岸田國士
桃子の貞操 宇野千代
大阪 藤澤桓夫
女の日記 林芙美子
男の一生 松本泰 松本恵子

岡邦雄氏をめぐる戀愛事件 眞相と批判

矢か彈丸か 野上彌生子
批 母性道の確立のために 山田わか
小市民に過ぎぬ 神近市子
戀愛論と戀愛 岡邦雄
私と子供達は今暴風雨のもとに 岡氏夫人 岡美津子
私の立場 岡氏愛人 桝本セツ
判 自分の經驗から 窪川稻子
私とは立場が違ふ 杉山平助

產業

巾着網獲得目標 中小漁業者結束
目的貫徹에邁進할것을盟誓 清津에서組合을創立

【清津】未曾有의 豐漁와 高價의 一躍으로 水產王國咸北에는 一見 漁業景氣의 好印象을주고 잇것만 그는 巾着網業者의 獨占的事業에 不過하고 大多數를 占據하고잇는 刺網業者에게는正反對로 날로 衰退하야 不遠에 業界로부터 完全히 影子를 감추고말 悲慘한 存在가되고마랏다

이에 清津在住鰮油肥業者가大同團結하야 巾着網獲得에 邁進하자는 運動이 擡頭하얏다함은 既報와갓거니와 그後 同運動은各方面에서 絕對的支持와 贊同을어더 一瀉千里로 組合의 結成까지를보게되얏다

去十五日午後三時 府內會館에 三十餘中小業者가會合하야 清津巾着網漁業共同組合의 創立總會를 開催하얏다 開會司會韓昇柏氏로부터 趣旨說明에드러가 『우리의 모든은 먹고살기위하야 最少限度의 要求를 提起하자는 것外에 아모것도 아니다 云云』 悲壯한 宣言이잇섯고 이어 發起人側으로부터 經過報告와 規約通過及 任員選擧가 잇섯는데 同六時半頃 組合員은두구나 最後까지 目的貫徹을 爲하야 奮鬪할것을 盟誓하고 散會하얏다는데 當選된 役員과組合員은 다음과갓다

▲組合長 金在洙▲副組合長李瑞慶▲理事 申東奎▲監查 金壽成 金田友二▲評議員 李東根 辛潤郁 梁泰斗 韓昇柏 崔在勳 梁谷新之助、▲組合員 朴一男 洪思約 李在成 南健祐 史七鉉 金昇奐 梁斌龍 金應鎬 金海順 姜南濤 金得鉉 金鎬珍 金亮久 趙誠和 韓敬基 姜鵬漢 李應實 趙正龍 德弘臣久 明神助長 李丙斗

煉炭의供給 今年은充分
價格引上念慮解消

煉炭期를 迎하야 煉炭의 引上이 憂慮되고잇는바 朝鮮無煙炭에서는 前年의 朝鮮內實消費七萬噸에對하야 今年은 十萬噸의 生產準備(今年度推定約八萬噸)를하얏슴으로 煉炭不足은 勿論 今後의 價格引上念慮도 全然 解消되엇다 그런데 右에對하야總督府서 嚴重히監督을遂行하고잇다

大根凶作으로 切乾大根全滅

京畿道의 切乾大根의 製造는 年年 農家의 副業으로 好績을 示하든바 今年은 水災로因하야 무의 埋沒面積이 廣面積에達하야 무의 大凶作을보아 이切乾大根의 副業은 全滅된 狀態로 이제 道農會의 調査에依하면 昨年製造數量이 六千貫 價額三千圓에 達하든것이 今年은 겨우 四百貫 價額二百圓程度바게안되리라고한다

麥酒消費 一躍三割이增加

朝鮮의 麥酒消費는 近年朝鮮人方面의 新需要喚起와 共히 增되야 昭和九年에는 二十萬箱 前後에 不過하든것이 十年에는 二十五萬箱을 超過하엿슨데 다시 今年의 實績은 一躍三割을 增加하야 三十三萬箱에 達하얏다 今年은 夏季低溫때문에 麥酒의 消費에는 惡條件임에도 不拘하고 그와가티 激增한것은 地方景氣의 好轉이 最大 原因이라는데 麥酒에 對한 新需要層의 擴大가 有力하다한다 그러고 十二年度에는 다시 二割의 增大를 業界에서는 豫想하고잇다한다

虎島一帶水底網 今年은七十三件準備
그資金二十一萬餘圓

【咸興】咸南永興灣虎島는 一年中 海業으로써 島民의 生活을 維持하는터인데 近海의 所產으로서는 到底히 그들의 生計를 圖謀할수업는 形便上 近年에는 멀리 退湖、遮湖、三湖等地에로 明太遠征을 가지안흐면 안되는 現象이라고한다 그런 關係上同島住民들은 元山等地로부터 財主를 求하야 一年間 明太水底網을準備해오든터인데 今年度에는 虎島一圓에서 該水底網을 準備한件數가 七十三件으로 그를 만들기爲하야 어든 基金으로 計算하면 每件에 對하야 三千圓式 假定한다고 할지라도 總計二十一萬九千餘圓으로 實로 이는 虎島全幅의 經濟를 左右하는세움이라고 한다

電工알미事業挫折

日本電工의 株價奔落은 森蟲翅氏系의 朝鮮事業에 큰期待를가지게하는만큼 朝鮮內에서 重視되고잇는데 電工의 減配와 事業의 難關逢着源因은 同社의朝鮮產明礬石을 原料로하는 알미製造業의 失敗에 原因한것이라 한다

卽 明礬石原料에서 알미製造는 試驗的으로는 好績을示하얏스나 本格的操業에드러가서 原料明礬石이 漸次低度化하야 그處理法으로 알모니아소ㅣ다 工場建設을 進行하고잇다 住友도 同工事에 着手하야 明礬石事業에 研究中이기때문에 全 期待에 큰影響을주는것이라한다

平南名產苹果 出荷頗旺盛
去月末檢查數量百萬貫超過

【平壤】平南道의 特產品인 苹果는 方今 出荷期에 直面하여 紅玉은 발서 相當한 出荷量을보앗고 國光도 市場에 出荷되고잇는데 十月末까지의 檢查數量은 百三十一萬一千三百七十五貫으로 前年同期보다 二萬五千二百四十八貫이나 적은것이 十月에드러서부터는 本格的으로되여 十月中의 檢查數量은 九十五萬九百九十二貫에 達해서 前年同期보다 二十萬二千八百六貫의激增을보앗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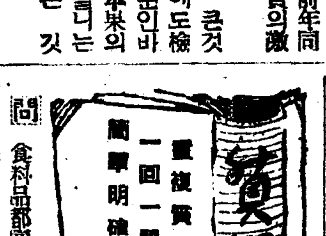
이것은 日氣의 關係가 큰것과 今年부터 中和、肅川에도檢查支所가 設置 되엿기때문인바 檢查數量의 增加는 平南苹果의 品質向上과가리 名聲을 올니는 것이라하여 關係方面에서는 깃버하고잇다

洋襪과고무靴 同業組合組織着手
平壤業者會合委員을選定

【平壤】輸出檢查執行機關으로洋襪과 고무靴의 同業組合을 組織하는 會合은 昨十六日 府廳에서 府內의 同業者들이 集合하여 組合組織에 對한 協議를 햇는데 十六日은 半數밧게 集合이되지못해서 不得已 全般에 對한 討議는 그만두고 委員을 選定하여 今後 이委員들로 創立事務를 進行하기로되엿다 따라서 第二回會合이잇슬터인데二十日頃에 開催될 貌樣이다

食糧充實圖謀코저 舒川麥裏作奬勵

忠南舒川郡에서는 今年稻作의 大凶作에 鑑하야 食糧充實 乃至 春耕期後和策으로 裏作奬勵의 新計劃을 樹立하고 郡內水田 一萬二千町步의 三分之一 四千町步에 對하야 麥裏作을奬勵코저 客月二十五日부터 今月十三日까지 郡職員을 總動員하야 大體豫定面積四千町步에 播種을식히엇는데 이것이 豫定數量에 達하면 段當收穫八斗로 看做하야 三萬二千石。一戶當 平均二石의 大計畫인바 이計劃에잇서서 重要行事는 今後 肥培管理의 勵行이라한다



問 食料品都賣商을 數臘下敎하시옵소서(元山府上里一讀者)

答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吉川商店、同南米倉町辻本商店等이잇읍니다

北鮮製紙人造羊毛製造開始

【吉州】北鮮製紙化學工業株式會社吉州工場은 그間 工事를竣工하고 지난十六日부터 操業을開始한바 特히 注目할것은 滿洲通商擁護問題를契機로 날로 人造羊毛需用이增加함에 着目하야 同社가 從來計劃中이던 製紙工業은 當分間中止하고 專혀 木材(落葉松)팔프로 人造羊毛生產을主로한다는바 年三十萬尺締의原木으로 二萬噸의 人毛팔프를製造하리라고한다

漁業의王座 鰮漁業趨勢 (一)

朝鮮의 水產業이 最近顯著한 發展을하고잇슴은 世人이 가리認하는바인바 就中 鰮漁業 及其製造加工業은 暑만한 躍進을 示하야 今日에잇서서는 半島水產界에잇서 一躍 花形으로되엿다 卽 漁獲高에잇서서는 朝鮮內總漁獲高五七、七七七千圓의約二〇%를 占하고 鰮油 及搾粕은 水產物製造加工品生產總高四五、五三三千圓中의 三六%에該當하고 昨年度와 如함은 全日本魚油肥總產額의 過半을 占하야 日本內地市勢까지 全然朝鮮產油肥가 支配하는 形便이엇다

漁獲高

鰮은 暖流가 適하는 海面을 選擇하는 魚族으로 朝鮮에서는 春秋무렵 暖流에 乘하야 慶南沿海를 경지나 東海岸을 北上하야 露領에 至하고 夏期부터 秋期까지 大概 同一地區를 南下한다고하는데 其漁獲은 慶南北、江原、咸南北의 五道의 沿海에서 產하고잇다

그런데 그漁獲高는 朝鮮全水產業中 斷然首位를 占하고잇는것으로 鰮漁業이 如何히 殷盛을 極하고 잇는가는 다음의鰮漁獲高와 總漁獲高와의 比較表及 鰮漁獲高道別年次統計에 依하야 充分히 窺知할수잇슬것이다 如斯한 漁獲高의 增加傾向은 如何한 理由에 基함것인가

由來 水產業은 가장 强히自然의 支配를 受하는 產業으로 漁獲高의 增減도 第一에 此自然的條件의 良否에 因하야 顯著히 左右됨은 當然한일이다 朝鮮의 鰮漁業에關하야 自然的條件을보면朝鮮東海岸에는 片口鰮의漁獲이잇서 地曳網에依한 漁業이盛하얏스나 大正七八年頃부터 漸次片口鰮의 沿岸洄游는減少하야 大正十二年에는 全然其姿態를감추어 이로 東海岸各漁場은 드되어 廢滅하얏다 그러나 同年부터海沖에서 大羽鰮의 魚獲이잇서 昭和元年 注文津에 油肥製造工場이 開設되어 數隻의刺網漁船을 經營하야 相當한好成績을 收하고 昭和三年頃부터는 大羽鰮漁業은 本格的發展을보게되엇다。漁獲高를 增加케하는第二要因으로는人爲的條件에잇다。昭和五年 一般經濟界의 不況과鰮漁獲高激增으로 魚價는 顯著히 低落하얏슴으로 그對策으로서 鰮油肥製造業水產組合을 設置하고 鰮의 大部分을 占하는製品鰮油·鰮搾粕의 生產販賣統制에 任하야 鰮漁業은 正調로歸하고 魚價는 恢復하야 漁獲高는 增大하얏다 以上가티 漁獲高는 自然的條件 人爲的條件의 好轉을따라 增大하야 昭和九年과 如함은 前記統制表가 示함과如히 躍增하얏다

▲總漁獲高와鰮漁獲高의累年比較表(大正十年乃至昭和九年)

年別	總漁獲高(貫)	鰮漁獲高(貫)	總漁獲高에對한(%)
大正十年	一二七、九九九、〇〇〇	七九四、四六〇	〇·六二三
同十一年	一三〇、七六五、〇〇〇	二八二、三五一	〇·二四〇
同十二年	一四七、一九六、〇〇〇	二、五三九、四〇四	一·七六五
同十三年	一四四、六七九、〇〇〇	四、六六三、四四一	四·三三八
同十四年	一四三、三〇三、〇〇〇	一三、九五三、一八六	九·七三六
同十五年	一八六、四〇五、〇〇〇	二六、七一三、二九九	一七·〇〇七
昭和二年	二二一、四六五、〇〇〇	三六、六八八、一三〇	二六·四九九
同三年	二三六、二六三、〇〇〇	六〇、一五九、八八六	二六·五五八
四年	二四二、二八九、〇〇〇	八〇、九二三、一二四	三三·二二六
五年	二三二、一〇五、〇〇〇	八六、六〇四、三三三	三三·二六一
六年	二七七、一九一、〇〇〇	八三、〇四五、五〇四	二九·九五九
七年	三一一、五二四、〇〇〇	九四、三四四、二二二	三三·八六五
八年	二六八、六〇三、〇〇〇	六〇、一九七、八〇一	二二·五五〇
九年	三七二、〇五二、〇〇〇	一五一、二三〇、八〇七	四〇·六八

▲備考=○本表中總漁獲高는 千位未滿의端數를切捨한 各種漁業漁獲高의總計 ○大正一〇年乃至昭和四年의 鰮漁獲高中에는 片口鰮을包含함

▲大羽鰮漁獲高道別年次統計表(大正十年乃至昭和九年)

年	別	咸鏡北道	咸鏡南道	江原道	慶尙北道	慶尙南道	合計
大正十年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一年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二年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三年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四年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五年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二年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三年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四年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五年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八年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備考=單位(價額은圓 數量은貫)

鑛業權設定·移動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〇四一	慶南蔚山郡武安面	十月二十八日	金正圻任意脫退
一〇五七	忠北忠州郡新尼面	十月二十九日	裵斗星任意脫退
一二五〇	平北宜川郡山面 城面楸峴面沙器面	十月二十九日	金允文任意脫退
一〇一六	忠南保寧郡川北面	十月三十日	田村彦彥任意脫退

◇鑛業權消滅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〇二一	忠北永同郡黃澗面	十月廿六日	分割에依함
九七五六	咸南新興郡東上面	十月二十八日	廢業
一一五七	咸南新興郡東上面	十月二十八日	廢業
一〇一九	忠南牙山郡陰峰面	十月二十九日	廢業
七九四九	咸南咸州郡上岐川面	十月三十日	廢業

◇鑛業代理人屆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鑛業權者	事項
八六六八 一〇六五八	江原通川郡鶴一面 咸南安邊郡新茅面	高淵儀平	元山府春日町西川末吉을鑛業代理人으로選任한旨昭和十一年十月十六日屆出
一六三二	江原高城郡新北面	西山吉兵衛	鑛業代理人西山十右衛門을解任하고京城府大和町原口淳男을鑛業代理人으로選任한旨昭和十一年十月二十日屆出
一三四九〇	慶北星州郡伽倻面修倫面 高靈郡雲水面	朴寅勳	達城郡玄風面片仲範을鑛業代理人으로選任한旨昭和十一年十月二十日屆出
九六七六 九八六一	咸北慶興郡豊海面 富寧郡豊海面 同慶興郡豊海面	富興鑛業株式會社	慶興郡豊海面山田坦을鑛業代理人으로選任한旨昭和十一年十月二十日屆出
七九四四	忠北忠州郡蘇面	有田熊吉	忠州郡忠州邑內田繁雄을鑛業代理人으로選任한旨昭和十一年十月二十三日屆出
七六一一 一一〇七六	江原洪川郡南面 同南面西面	三菱鑛業株式會社	鑛業代理人菊池仁吉을解任하고京城府南大門通柳井雄吉을鑛業代理人으로選任한旨昭和十一年十月二十一日屆出
一一五九四 一二七五三	忠北永同郡永同面 同永同面楊江面	莊原三郎	永同郡永同面小澤寬三을鑛業代理人으로選任한旨昭和十一年十月二十三日屆出
[illegible]	平北碧潼郡雩時面 同雩時面加別面 同楚山郡南面 碧潼郡雩時面 同楚山郡江面	日本鑛業株式會社	鑛業代理人同部愉男을解任하고京城府南山町羽鳥午二을鑛業代理人으로選任한旨昭和十一年十月二十一日屆出
[illegible]	黃海金川郡北面 同馬山面 黃海海州郡代車面 同瓮津郡西面龍泉 同北面 同西面	同	鑛業代理人小畑紘을解任하고京城府南山町岡部愉男을鑛業代理人으로選任한旨昭和十一年十月二十一日屆出
[illegible]	同長淵郡樂道面松禾郡蓮井面	同	同昭和十一年十月二十三日屆出
[illegible]	同長淵郡長淵面樂道面 松禾郡蓮井面長淵郡樂道面 長淵郡蓮井面	同	同昭和十一年十月二十八日屆出

社會事業協會收合 水害義捐金

▲二三、一八 東部町町友會經由 二〇錢 洪福順 李秉禧 崔應燮 五錢 朴東植 金順伊 李 丙泰 洪天學 朴東淑 七錢 泰伊 宋忠淑 朴鳳花 李聖淑 金一秀 一〇錢 李九均 張石史 沈七鳳 姜鳳秀 金順玉 朴仁進 洪承燕 元容常 張汝三 金善淵 嚴永奎 安致行 朴東燁 金炳華 金俊用 崔善煥 鄭泰鶴 李春成 姜貞淑 魚孝善 金恩東 李東根 朴七鳳 孫武成 一五錢 宋琦憲 二〇錢 安允浩 金基鮮 金根永 梁茂吉 許振運 吳學圭 尹鍾培 金有敏 崔元淳 張玉姬 洪淳沫 朴贊淑 梁貞淑 車健準 金花仙 李仙紅 崔炳淑 朴東元 安華淑 安昌老 金基正 李女順 白元信 劉 洪 三〇錢 金泰煥 朴潤泰 李貴仁 韓淳德 金文洙 李一木 吳春明 姜春燁 朴應元 五〇錢 宣泳徹 韓鳳源 諸英淑 李尙浩 金元龍 宋在豊 金南吉 尹炳翰 李德卿 金七星 金元善 尹用文 金春子 黃聖澤 李忠俊 慶興善 崔英植 宋秉燁 申錫模 成樂天 崔聖道 鄭泰順 諸哲鎬 姜聖求 李光陽 李啓鍚 張周煥 崔鳳混 朴炳夏 安商德 申泰卿 李正熙 宋台鉉 丁命鎬 朴圭洙 朴斗鎬 李載贇 朴勝雲 鄭鴻鎭 鄭基俊 諸東海 裵尙福 賬伯善 許基彬 石鎭根 朴荷旭 申來權 尹相俊 金永完 一、〇〇 閔丙厚 金大植 裕信商會 李明燮 池盛周 金承範 金聖澤 李永俊 南相鎬 田應燾 尹道植 權泰貞 尹秉勳 朴銀松 沈澤裕 崔濬植 金潤彦 李康德 李贊貞 白棋淳 文承宇 劉志蕙 孔正基 朴一洙 金贊鎬 李允洙 金永俊 朴在命 李益洙 朴泳泰 金俊培 閔炳翊 朴敏子 閔炳俊 閔炳奎 金貞洙 李正熙 李殷卿 安英子 朴松淑 金容吉 高圭相 林鎭元 朴一洙 吳大錫 朴泰燁 安秉台 一、五〇 靴工洋靴店 二、〇〇 金學喆 李定宰 吉寵石 三、〇〇 朴昌熏 崔相珪 五、〇〇 安仲商店 山本平治 吳 一、〇〇 金容鎬 李鉉子 五、〇〇 李憲寧

▲二九、三〇 兵庫縣川邊郡立花村朝鮮人一同 二〇錢 林晉生 金在萬 二五錢 文義俊 十八鳳 三〇錢 金在守 鄭點乭 金錫峰 五〇錢 朴初然 金昌錄 申一甲 尹應九 李萬基 徐甲尙 徐又龍 姜敬用 金永昌 林應祚 李文述 金約永 朱泰龍 金浩華 張守奉 一、〇〇 方榮哲 金興守 朴聖伯 二、〇〇 申敬淑 一五、〇〇 文性仁

▲一八、四五 西淀川在留朝鮮人一同 五錢 尙光舜 無名氏 一〇錢 李大鳳 金英秋 尹萬英 李昌成 鄭壽同 二〇錢 金石伊 金基漢 邊鍾洙 許成權 朴禹夏 朴小用 五〇錢 金泰龍 三〇錢 朴泰權 宋浩淸 朴龍伊 姜鱗植 李孝俊 曹東出 李用伊 金擧岩 金小龍 郭泳浩 韓在錫 韓鋼錫 金先根 向三祚 李仁夏 李春京 朴鳳學 趙恒杓 李白秀 韓舜錫 洪大鎬 盧千玉 李義道 崔錫範 朴魯泰 裵同道 金判鎬 申官混 金向聲 山本一郞 裵明七 河億萬 李鍾秀 金同成 一、〇〇 申興均 宋福萬 孫順業 二、〇〇 崔光勳 河長守 金永坤

▲一一五、三三 龍江町町會經由分 五錢也 卓演圭 金正順 姜淑子 十錢也 金秉德 朴琦昌 尹福同 張泰元 李泰吉 韓詰愚 金萬吉 十三錢 李興昌 十五錢 李愚寬 林星七 高仁石 二十錢 兪雲錫 朴敬煥 李昌先 金洙熙 曹聖煥 尹敬汝 趙炳贊 邵正淑 李玉桃 金炳寬 崔興用 段俊鎬 朴致景 李泰傑 金鍾煥 尹福吉 丁益先 金明植 權衡周 李億福 金龍雲 李昊元 金炳祚 徐英基 吳千吉 金仁洙 李元模 尹東雲 洪基泰 金東植 金容德 金容善 崔泰軾 金基泰 二五錢 朴應三 三〇錢 王壽堂 卞相根 朴 根 朴正漢 白英鉉 金章植 嚴輕善 李友和 安潤道 四十錢 曺億光 五十錢 梁文煥 金基興 李鎬甫 金采書 高丙極 金雲鄕 李敎祚 林炳壽 安連洙 李載淸 李振球 張基邦 李興實 劉宰浩 金重培 徐致順 馬鍾必 李奉石 姜元根 許周烈 權重沃 安在順 韓順敎 鄭炳基 權重濂 大井空 一圓同 七五錢 李熙達 金壽貞 金淸健 呂運轍 鄭昌根 高樂相 金容圭 李世浩 閔鳳植 龍江町 同心社 鄭浩錫 金章煥 共立醫院 田獨六 二和精米所 龍江村 二圓也 蔡世粟 龍江町西端公廳 永昌材木店 李永杜 申大均 參圓也 張雲鎭 李弼完 閔台植 四圓也 朴明鎬 宋彦鎬 劉根洪

五圓也 尹炳求 京城礦業株式會社 十圓也 鄭雲成 二十圓 沈植澤

▲三六、四五 忠信町町會經由 一〇錢 韓昌熙 金俊鋼 劉衛杓 李洪約 李根俊 朴聖一 朴潢祿 李範寬 朴昇鎬 田龍淳 梁錫完 李士東 安益善 崔率貞 朴明烈 崔聖九 金 氏 申仁成 金鍾大 李鍾雨 金洪培 洪鍾運 吳應奎 金德根 金景義 金鍾基 皮熙承 一五錢 吳弘權 二〇錢 安洛三 盧丙益 鄭丁男 方應三 閔泳璣 丁福成 李淑瑩 金善裕 金源鴻 嚴淑子 安泳福 文泰順 李龍根 咸德潤 徐成茂 日武鉉 金俊石 金敬熙 杜鳳 梅本宅雄 藤內女子 朴仁煥 三〇錢 李晩性 李成龍 金東奎 韓甲東 高聖弼 李圭源 朴四龍 尹春興 金元三 小柳富士孝 松澤壽一 五〇錢 鄭在源 崔鳳煥 林銀順 李慶男 金璨植 李亮圭 金相五 邊鳳獸 朴光熙 鄭興敎 瀧岐文 孔圭皓 朴文陽 德久一雄 德永鐵藏 早水隆平 一、〇〇 李喜烈 韓泰佳 金德在 崔潤基 藤原郁 崔鳴煥 李照憲

▲二〇七、二九 朝鮮日報社平壤支局經由 四、七五 平壤章峴敎會少年部一同 一三、〇三 平壤安息日敎會信者一同 五、〇〇 平壤新里監理敎人一同 二〇、〇〇 平壤憲眞組合一同 六三、七九〇 平壤公立高等普通學校生徒一同 四、〇〇 平壤南門外敎會信道隊一同 一六、四五 平壤大元製針工場一同 一、〇〇 金英興 二五、一〇 平壤鮮滿고무工場男女職工職員一同 九、六四 平壤箕林里丸善洋襪工場一同 二、五〇 大同郡南串面覺今里覺今學校職員一同 四、〇〇 覺今學校生徒一同 三、〇〇 覺今里靑年團一同 五、〇錢 覺今里女子夜學部一同 一六、五〇 金世濟 平壤고무洋襪工業社從業員一同 一〇、〇〇 平壤平元고무工業社員一同 三、四七 平壤南山町女子夜學院生徒一同 平壤府仁興里丸善洋襪工場 一〇錢 鄭利雲 宋永光 朴玉善 金貞寶 朴炳淑 孫永寶 金玉順 文炳鶴 金寶貝 丙仁洙 安貞洽 金正植 林順愛 朴炳建 朴小女 朴善富 李孝植 韓京燮 李萬叔 崔榮杜 朴龍植 盧龍女 池賜河 金泰善 金鳳九 鄭基憲 明敬善 一五錢 崔根燮 李豊鎬 金仲根 金仁興 金基贊 金潤燁 崔應三 黃永福 諸淳吉 李健學 三〇錢 李昌淵 李演郁 朴贊鎬 李潤亨 金泰星 吉明洙 邊龍俊 金明洙 金佳善 金養文 邊龍基 金泰淑 金萬善 李將實 李應玉 朴炳善 李恩夏 五〇錢 金載旭 金根澤 金始昌 安炳律 李寶虎 韓炳權 黃永燦 金應燦 高仁濟 崔德三 七〇錢 安在弼 金文鎬 一、〇〇 崔成恒 李錫均 金榮熙 宋鎭鉉 李鍾寬 李貞淑 張文亨 一、五〇 金制老 崔用基 金俊植

▲五五、八五 水下長橋町町會經由 一〇錢 柳智燮 李寶卿 鄭熙燮 韓國鍋 一五錢 安東載 李雲瑛 二〇錢 金玉凝 郭漢杓 朴泰植 金 鎬 金英淑 李大元 李在根 鄭仁洙 李九範 咸鶴占 鈴木晴夫 李景淑 朴仁榮 李光運 鈴木キク 本摺隆士 三〇錢 黃金自轉車店 林 濡 金相連 中村峰松 朴春子 方一鍵 吉勇培 野田胤 朴龍水 鵜瀞佐太郞 金基英 石川政子 三上靖 金弘錫 松本熊八 岩田東一 鈴木英三 松尾淸治 西鄕幸治 外山黎望 名島光雄 黃炳國 李大俊 李敬玉 李 煜 中川 金成煥 金敎學 卞貞熙 金英淑 宋泰貞 金昌淳 金潤洙 朱永化 姜永壽 朴淳明 劉弘相 康潤貞 李己勳 朴壽源 洪性郁 李鍾德 皐興求 袁榮贊 崔希元 袁鍾喆 內田 鈴木勝次郞 黃德星 桂敬熙 根ミサ 池田重稔 角田啓市 山田謙吉 滿上日出雄 倉 一、〇〇 福岡淺吉 佐佐木太賀雄 水南旅館 一山本 西軒善治 長橋商店 松下勳 鄭仁錫 朴奇錫 五味光一 鄭元達 金錦子 李維善 南錫熙 黃道奎 安大鎬 禹貫永 姜漢熏 趙炳璨 朴昌學 金己得 李仁德 姜元奎 金時用 尹 泰 金禹善 朴漢任 李守學 張錫虎 李仲吉 梁炳斗 京一硝子店 梁晶植 金寅培 尹明龍 岩田謙一 二、〇〇 金弘 吳萬成 許 燮

金東獻 金商善 高麗相 崔淳燮 三、〇〇 崔泰柱 李鍾九 洪亮燮 金鋼植 趙基俊 五、〇〇 山中大吉 木鉉健夫 朴致根 中込仁道 金東鎬 一〇、〇〇 張斗鉉 朴洪佑 金蓮 金商植 二〇、〇〇 李鍾九 李奎鎭 五〇、〇〇 李鍾國 一〇〇、〇〇 金用集 金庫永 曹秉學

▲三四八、五三 鍾路勞濟成年生一同 五〇錢 李仙紅 李玉香 李貞紅 李香蘭 李山玉 李銀玉 李玉珠 金桂紅 金貞淑 金英淑 金海月 金美花 金花仙 金雲紅 金蓮花 金 玉 金銀花 金枝花 金桂玉 金松鶴 金南洙 金春波 金花妍 崔蘭紅 金玉瓊 金彩鳳 金水晶 朴春紅 鄭三珠 鄭玉珠 朴蘭紅 宋英子 朴瓊玉 朴玉心 朴寶淑 文錦花 尹貞子 張桂香 韓碧桃 諸月色 文有色 洪桃花 洪彩鳳 中梨花 鄭錦桃 田春紅 孫貞姬 河玉花 申錦紅 申錦仙 方彩仙 吳香花 玄梅紅 張英月 千春紅 裵映月 馬貞紅 白雲峰 安香花 一、〇〇 張惠玉 張錦花 韓相香 文錦蘭 吳桂仙 吳春心 吳錦波 趙英子 黃菊花 洪蓮花 洪月仙 白 雪 趙柳色 柳錦花 白鶴仙 孫錦蘭 金鳳蘭 林淑子 孫彩玉 申玉桃 高蓮月 林春紅 梁山玉 元弄圓 權觀景 朱錦子 郭明月 李彩雲 陳蓮紅 壬大香 李枝梅 李蘭香 李京錦 李彩鳳 金花中仙 李剛仙 李少香 李花香 李芝仙 李明玉 李曉月 李銀月 李金子 金弄月 李錦珠 李玉姬 金惠淑 金香仙 金貞紅 金銀紅 金一枝紅 金桃花 金玉仙 金彩仙 金桂花 二、〇〇 丁錦紅 趙蘭紅 高蓮玉 孫英玉 盧蓮香 徐蘭香 任彩鳳 梁彩仙 徐紅梅 金寶淑 玄山玉 閔錦仙 曺弄珠 李小紅 黃玉珠 柳蓮玉 林香心 鄭梅花 金彩玉 金銀珠 金甲順 三、〇〇 朴花仙 尹恩姬 韓仙花 姜梅紅 李明淑 崔香心 張錦紅 五、〇〇 孫春紅 尹蓮心 任彩鳳 朴玉姬 鄭錦紅 鄭雪月 鄭錦蘭 李花中月 田一聲 高 峰 方錦仙 一〇、〇〇 金明淑 金山月 金山月 安竹香 朴明玉 尹蓮紅 五〇、〇〇 禹山玉

▲一〇一、三四 崇仁町町會經由 五錢 李致玄 一〇錢 權奇容 金連壽 李守龍 李仁鉻 金聖鉉 朴貞子 崔元三 柳秉濬 吳順善 卞榮泰 朴聖九 金敎仁 朴檍桓 崔永植 徐相基 梁景玉 申達淳 姜元鳳 一五錢 林泰然 自勢復吉 二〇錢 權晋植 朴春成 鄭興瑞 金春瀚 李潤鍾 李殷澤 李昌培 隋順義 張順五 金東榮 安元根 韓明鎬 李壽福 崔在旭 吉炯煥 姜仁模 李漢龍 金炳奎 李景世 金基柱 權喆周 韓云石 金敎鳳 許 鎭 南明熙 鄭鍾晩 李順日 鄭完昌 鄭俊鉉 車潤玉 李聖煥 三〇錢 宣德秀 朴秀喆 金永秀 韓升文 金貞坤 韓萬鎬 金世顯 權寧國 金京順 鄭萬榮 梁泰鎬 五〇錢 金景鎬 金鎭洙 李龍福 曺永興 金永福 金敬默 申鉉瑗 鄭淺順 金寶榮 金億天 金琪熔 李秀學 金德山 黃鎭鎬 金鍾萬 房立中 張明允 姜明浩 金福龍 李相龍 中西九一郞 馬景伊 韓姬玉 雜賀英太郞 魚命化 李仲國 一、〇〇 金容默 梁錦圓 郭潤從 崔鍾旭 金永國 李德用 金允興 洪茂吉 愼宗錫 孫性敎 金演斗 李載錫 李永根 金重赫 趙鏞桓 一、四四 金基子 金基琢 二、〇〇 洪祥根 三、〇〇 東仁株式會社洪祥根 五、〇〇 稗出安治 一〇、〇〇 李斗卿 三〇、〇〇 吳榮淳

▲三五、九四 舊馬場町町會經由 一〇錢 南昌元 尹敬植 鄭順三 徐命山 金貴男 二〇錢 金永甫 陳祥芝 張聖儒 朴稚石 金信同 徐順甲 張殷興 元宗興 尹壽徵 李順明 安男勇 渡邊郡一 千弘植 都千根 上田宇一郞 三〇錢 文浩哲 文用得 五〇錢 四〇錢 李道英 尹衛弼 元順興 南成七 近江昇 吳相春 李河 張元成 宋鍾鎭 二六錢 金興燮 尹石南 一、〇〇 林福錫 一、〇〇 尹斑 三、四四 失名氏

▲一八、七一 培花公立普通學校生徒一同 三、七〇 第一學年六七人 三、〇〇 第二學年六二人 三、四五 第三學年六三人 三、四五 第四學年四七人 二、五六 第五學年六二人 二、四五 第六學年四八人

▲一一、六〇 全和內鮮同好會經由分 五錢也 金敬集 金丁生 朴亨明 十錢也 鄭允用 柳光浩 金且瀚 高 田 盧球石 權達淑 劉良洙 金友三 劉先出 大谷 宮本 金甲生 一五錢 番吉守 二〇錢 金聖泰 鄭命用 朴又弘 秋命善 趙龍得 金仁守 岩 橋 金允玉 裵令石 黃東洙 金東立 小 上 〇錢 梁成敏 李順介 尹雲龍

▲三二一、〇三 竹添町三丁目町會經由 五〇錢 趙直根 林三郞 三圓也 中原染工主 中原染工職工一同 一〇錢 韓昌善 崔永龍 金末相 宋龍俊 申龍均 李東伊 金 濟 崔齊鉉 韓東建 崔泰華 李南山 崔濟伯 二〇錢 李敏茂 一三錢 尹鉉錫 朴日龍 林奉模 梁錦鎬 朴富利 黃泰煥 柳萬得 閔義鳳 高昌俊 三〇錢 李元默 河東明 李斗鎬 徐瓜錫 徐廷斗 趙東旭 張順宗 李忠憲 朴寶云 朴仁權 五〇錢 吳用福 景興植 張應根 崔益杜 朴貞順 金永植 姜是永 洪生鳳 高濟元 金承煒 李時和 金相俊 李聖鎬 黃聖福 李敬福 元士順 金德文 李鍾弘 千永植 陳官用 李浩南 張興德 金錫九 金得洙 車相達 垣下勝次郞 大西淸一 林鍾燮 一、〇〇 金洛中 池東燮 姜學演 金宅燮 金應模 尹定夏 金英俊 李可順 李頃均 公然泰 韓德汝 地球堂 嚴哲銀 李鍾九 崔基般 黃召史 徐炳赫 崔蓉璿 趙一龍 池田助三郞 吉文雄 金顯鳳 姚志龍 朴興植 金學秀 裵東煥 渡邊福治 朴萬天 金學先 崔興福 姜德馨 邊哀煥 張基峻 李鳳榮 村山龍造 五十部章助 古山利雄 長谷部嚴 許 燮 森山儀六 高崎齊 妹尾男 西田明松 西新一 久保喜次郞 宋興植 金寘成 二、〇〇 阿部今雄 尹寶模 任輔相 林英浩 金泰鉉 金成煥 崔德子 李鳳煥 中村彦治 朴允煥 小堤八郞 金忠會 金振聲 金肯恒 德田桃吉 山口正二 岩本國雄 和田八十穗 廣安喜次郞 中村彦治 三、〇〇 金度演 竹井廉 鄭圭完 西貞雄 辻善一 五、〇〇 金龍植 張炳俊 京信釀造合資會社 一〇、〇〇 竹添町會 二〇、〇〇 金奉鎬

▲八六、六二 城北町町會經由 五錢 閔德基 金龍運 鄭昌模 一〇錢 諸重龍 金孝泳 林泳文 鄭大鉉 張基完 安孝泳 崔允先 車熙明 安學鳳 姜達淳 李熙永 金相根 李被淳 李周永 方孝正 林明均 鄭壽吉 李銀京 梁昌洙 權南壽 金益斑 邊天京 孟斗煥 李齊洼 高明瑞 池在允 方孝吉 白興昌 申興圭 洪淳祚 林炳德 金永圭 吳昌獸 金基永 玄濟銀 朴弘基 李召史 崔基永 崔德富 朴貞瑞 金相哲 金明在 金在球 郭殷姬 姜海熙 金壽卿 李文龍 李聖根 金應基 趙定釗 車英賢 孫興奎 李允範 金秉斗 高長煥 梁在範 金雲植 洪宗漢 一五錢 朴建煥 金玉仁 玄在德 一七錢 陳將鏞 柳興成 閔炳斗 二〇錢 金興淳 金世郞 宋柱國 金俊福 劉昌源 徐長信 沈春伯 朴亨進 白南鶴 金大連 尹炳胄 李在漢 柳漢豊 李永煥 盧萬愚 朴在憲 姜春日 李元泰 姜奭求 愼鏞商 吳漢根 朴大鎭 姜餘忠 金興淳 金玉鎭 金錫鳳 裵智順 劉榮圭 李圭馥 申命熙 李鳳龍 李祥白 二五錢 李東熏 김山洋牧場 金東麒 金從元 三〇錢 徐光前 金孝燮 安德鎭 金喜元 李俊龍 李熙從 金貞培 李泰龍 金鍾浩 金容邈 林達鎬 李道昕 高 喆 朴勝烈 林點壽 曺載裕 趙曙熙 城北町幼年主日學校兒童一同 徐成龍 吳興烈 文大榮 三五錢 趙昌善 四〇錢 盧子泳 五〇錢 金昌玉 李喆雨 金基淳 成京植 崔永化 李基豊 梁順龍 金容漢 徐壽王 韓相玉 劉在元 金昌原 裵錫泰 李建浩 李鍾九 姜餘卿 金相駿 鄭春明 李丙壽 金善娘 雅仙閣 申學均 李龍淵 李鍾得 許 松 金斗憲 李娳宰 林昌善 崔聽任 趙誠惠 金東赫 朴永善 權寧德 金琪坤 金興鎬 田元培 廉近鏞 金昇植 宋秉憲 金任順 金相基 金漢奎 宋應準 李載惠 金正默 柳學東 尹宜榮 金喆宇 李容漢 李圭元 金起集 具然協 姜永澤 安奎鎬 今田甚吾 七〇錢 白樂均 一、〇〇 金大鉉 丁喜燮 崔載瑞 李姉和 黃基昊 趙光熙 尹適求 李昌燧 鄭宙燮 宋戊生 李昌培 李永煥 協成會幹部一同 二、〇〇 李春石 李相晋 鄭載文 三、〇〇 鄭元綱 崔炳基 李信鎬

▲二六、〇五 東氷庫鏡城町町會經由 五錢 黃允達 崔先出 金應奎 一〇錢 金允奉 黃台秀 金完根 羅貫龍 李二龍 金三乭 李命川 崔壽福 安致敬 金石三 宋春山 鄭平玉 二〇錢 金泰山 權仁植 李敎尙 延壽明 朴明煥 金得俊 徐丙協 李奉石 金敎榮 郭月伊 黃基成 鄭大福 李承會 二五錢 金奉俊 段亨杜 三〇錢 鄭泰休 徐在龍 金仁學 安明鉉 金泰永 四〇錢 趙貞直 鄭晶元 張圭煥 姜重玉 崔元春 五〇錢 孫重赫 朴敬元 金雄俊 李時潤 金明浩 段亨完 梁文煥 景光鉉 文月峰 姜大昊 朴致陽 金義根 金晟鎬 金熙歆 史寅煥 金敬明 金奭培 元一成 金召史 一、〇〇 林炳喆 金敬根 金春蘊 李然秀 吳光玉 李元根 李鍾張 鄭錦五

雙虹舞 (四四)
方仁根 作 金奎澤 畫

사랑의승리 (三)

광호와 은영의 혼인날은 닥처왓다。바로 결혼할날은스므날이오 일요일이엇다。이날로 작정한것은 일학교방학이 열아흐렛날이오 또 일요일이라야 편히손님을 청하기가 편리한 까닭이다。

광훈은 아침에 이러나는대로 뒤동산으로 혼자산보를갓다。혼인날 비가오면 불길하다는데 여름장마에 비나 오지아니할가하고 염려하든것과는 딴판으로 날이몹시 청명하엿다。광훈은 기쁘고도 상쾌하엿다。은명도 오늘아침에는 일즉이러나서 지금은 마음이 설네이고도 기쁘리라하는 생각을 하니 전보다도 웬일인지 애틋하게 보고시펏다。

『은명이 정말 오늘은 내 안해가된다!』하는 생각을 하니 웬일인지 밋어지지안는 꿈과 가탓다。어서 어서 오늘 혼례식이 끗낫으면 시원할것가탓다。그러면서도 한편 혼례식을 해버리는것이 앗가운것도 가탓다。

『은명이 과연 어제밤에 잘잣을가。갑작이무슨 병이 낫더지 큰일은 생기지 아니하엿을가』

이런쓸데업는 생각까지 이러낫다。

광훈도 어제밤에는 잠을 잘못자서 아침에이러나니 피곤하엿다。그보다도 재미업는꿈을만히 꾸엇다。광훈은 꿈가튼것을 우섭게 역이는성미이지마는 어제밤꿈만은 마음에걸리엇다。다른꿈도 만엇지마는 그중 기억이되고 불쾌한것은 자기가 은명과 혼인을 벌서해서 아들딸낫코 잘사는데――그꿈속에는은명이 퍽나히들어 보혓다――곽래식과 김경주가 밤중에와서경주는 자기를 꽉붓잡고 래식은 은명의손을끌고 박그로 나아갓다 광훈은 경주의손을 뿌리치고 은명을 쌔아가려고하니 경주는 노치아니하고 학교대운동때에 이인삼각을하는 붉은끈으로 눈을동여매엇다。그래도 광훈은 허둥거리며 나아가서 그끈을 풀고보니 은명과 래식이 손을잡고 나란히 서서광훈을 비웃는대도로 처다보앗다。

『은명이! 은명이!』하고 부르니 은명은 깔깔우스며 래식과함께 빨아낫다。광훈은 방으로 들어가서 면도칼을 들고나와서 래식과 은명을 조처갓다。조처 가 위선 래식의목을 칼로 베허니 [illegible] 와 뚤여저서 얼굴만 공중으로 올려가며 눈을 흘기고 나려다 보앗다。그다음은 은명의 가슴을 쭉찌르니 선지피가 콸콸 뿜어나와 광훈의 얼골에 뒤엿다。은명은 그대로 꼿꼿하게선채 눈을감고 죽어버리엇다。광훈은그은명의 시체를 안고업고돌로산으로 헤매는데 어떤낭떠러지에 그만떨어젓다。깜짝놀래여깨니 꿈이엇다。광훈은그담부터 잠을이루지못하엿다。꿈이란허무한것이지마는 너무흉한꿈을꾸어서 불쾌하엿다。오늘혼인날에 무슨불길한일이 잇슬가?그러치아니하면 혼인한뒤에 무슨불행한일이 생길가?하고 광훈은이리저리 생각하엿스나 그런일은절대로 업슬것가탓다。

『내가아마 경주와 래식의문제로 요새 성화를밧고 념려를햇스니까 그런꿈을 꾸는것이겟지! 그러기에 학교대운동때에 쓰든

이되어서 꿈에보인것이지……좌우간꿈이란 허무하니까……』

아침이되니 그꿈은 문제도 되지안코 오직 즐거울뿐이엇다。

광훈은 뒷동산 조곰 노픈데로 가서 동내를 나려다보며 아침 햇빗과 맑은 공긔를 마시면서 심호흡을 하엿다。

들로 나아가는 농부들이 푸른 논과 밧사이 꼬불꼬불한 길에 휘득휘득 보혓다。풀에 매친 이슬은 햇빗에 진주처럼 빤작이엇다。아침부터 매미는 울기시작하니 오늘도 날이 몹시 더울것을 련상시키엇다。

광훈의 눈아페 나타나는 아름다운 이동내와 그아페 들과 건너산과 하늘과 모두가 전보다 훨신 조와보이고 딴 세상가티 보혓다。그것은 은명과 오늘 혼인을하여 은명은 자긔의 안해가되고 자긔는 그의 남편이되어 오늘부터 이천지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된다는 생각이 자긔도 딴 사람가티 되여 보히고 세상도 딴 세상가티 보히는것이엇다。좌우간 오늘이란 이 하로는 자기일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갈래질이오 고개인것을 생각하니 이 하로의 해뜨는것이나 사람가는것이나 구름한점이나 매미소리하나이나 무엇이나 무심한것은 업는것가티 느끼어젓다。